지금 우리의 율곡 1

뜻을 세워라

지금 우리의 율곡 1
뜻을 세워라

2022년 11월 30일 처음 펴냄

편역자 이종란
발행인 우관제
발행처 파주문화원
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전화 031-941-2425 전송 031-941-2511
전자우편 pajucc@naver.com

© 파주문화원, 2022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9-11-980667-1-8 04990
979-11-980667-0-1(세트)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간행하였습니다
(사업명: 율곡학 콘텐츠 개발과 국제적 확산 사업).

지금 우리의 율곡 1

뜻을 세워라

이종란 편역

파주문화원

발간사

파주는 율곡의 본향이며 기호 유학의 본산입니다. 율곡 선생은 16세기 조선의 사대 학자이며 정치가셨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생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율곡 선생의 말씀이 울림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 군사력 · 과학기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각종 국제 대회에서 한국인이 큰 상을 탈 때 스스로 문화민족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국내 문제와 갈등 현장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과연 그 자부심에 맞게 어울리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까닭은 현대 한국인의 평균적 삶의 모습에서 문화민족다운 점을 찾기 힘든 점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문화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것을 내 삶 속에 내면화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현대에 제대로 살리지 못하

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일차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정신적 유산이 거의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여 생활에 적용하고, 때로는 외국인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서는 방대한 문화유산 가운데서 율곡 선생의 문집에 실려있는 글을 뽑아 먼저 우리말로 옮기고, 확장을 위해 영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누구나 갖고 다니기 편한 책자로, 손쉽게 읽을 수 있는 간결한 문장으로 편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문헌 자체도 방대할뿐더러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본서는 우선 그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초학자가 배움에 앞서 뜻을 세운다는 '입지'(立志)를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뜻을 세운다는 말은 오늘날 개인이나 조직의 리더가 삶이나 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무슨 뜻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자세로 그것을 이루는지 이 작은 책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학문과 사상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원하는 독자들께서는 권말에 부록으로 첨부한 "'입지'의 철학적 근거와 배경"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책상 위나 사무실, 승용차 안이나 사업장에 늘 가까이 두고 틈틈이 읽어본다면, 마음의 양식과 거울이 되어 훨씬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꼭 좋은 뜻을 세우고 실천하시기를 빕니다.

2022. 9.

파주문화원 원장 우관제

차례

발간사 5

01 무슨 뜻을 세울까? 11
What kind of will will you set?
02 뜻이란 무엇인가? 23
What is will?
03 뜻을 이룰 수 있는 근거 41
Grounds to achieve one's will
04 뜻을 이루는 방법 57
How to make a will come true
05 어떤 뜻이 있는가? 89
What kinds of will are there?
06 뜻에 따라 다른 결과 129
Results that depend on the will
07 뜻을 못 이루는 까닭 153
Reasons for not achieving your will

[부록] 입지의 철학적 근거와 배경 169

편역자 후기 182

01

무슨 뜻을 세울까?

What kind of will will you set?

이 장은 뜻을 세움에 있어서 개인의 삶 또는 조직의 목표라 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 여기서 목표란 개인으로서는 성인(聖人)이요, 국가 조직의 왕으로서는 성군(聖君)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初學先須立志必以聖人自期不可有一毫自
초 학 선 수 입 지 필 이 성 인 자 기 불 가 유 일 호 자
小退託之念
소 퇴 탁 지 념

◁격몽요결▷

초학자는 먼저 뜻을 세움에 있어 반드시 성인이 될 것을 스스로 기약해야지, 조금이라도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물러나며 핑계를 대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A beginning student most of all, when you set your will, must promise yourself that you will become a saint, but should not think of yourself as small and give up on yourself as an excuse.

*初學: 처음 배우는 사람 *先: 먼저
*須: ~해야 한다 *立志: 뜻을 세우다
*以: 수단, 방법, 자격 등을 나타내는 어조사
*自期: 마음속으로 스스로 기약하다
*不可: 동사 앞에서 금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一毫: 털끝 하나로 아주 작은 것을 비유한 말
*有: 소유하다 *自小: 자기를 작게 여기다
*退託: 물러나면서 핑계 댐 *必: 반드시
*之: ~의 *念: 생각

해설

『격몽요결』「입지장」의 첫 문장이다.

처음 배우는 사람은 성인이 되고자 하는 배움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것을 엉뚱한 생각이라고 하겠지만, 여기에는 철학적인 실제 사례도 있다. 앞으로 소개할 세 번째 장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근거'에서 자세히 다룬다.

여기서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그 공부의 적극성을 매우 강조했다.

先須大其志以聖人爲準則一毫不及聖人則
선 수 대 기 지 이 성 인 위 준 칙 일 호 불 급 성 인 즉
吾事未了
오 사 미 료

◁자경문▷

먼저 나의 뜻을 크게 하여 성인을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하면 내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First of all, I have to make my will bigger and take the saint as the standard. If I will not be able to reach the saint even in the slightest, my work will not be finished.

*先: 먼저 *須: 모름지기 ~해야 한다
*大: 크게 하다 *其: 그(대명사)
*以~爲~: ~을 ~로 삼다 *準則: 표준
*一毫: 아주 작은 것, 조금이라도 *不及: 미치지(도달하지) 못하다
*則: 즉(조건절과 주절을 잇는 어조사)
*未: (아직) ~가 아니다 *了: 끝내다, 완료하다

해설

선생이 스스로 경계하는 글인 「자경문」(自警文)에서 다짐하는 말이다.

성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그저 근거 없는 허황된 꿈이 아니다. 양명학을 창시한 중국 명나라의 대학자 왕수인(王守仁)도 어릴 때 서당 훈장에게 성인이 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일반 상식에서 보면 생뚱맞은 생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성인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른다면,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일이다. 기독교나 불교의 참된 신자도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성품을 닮고자 하지 않는가?

僕雖志氣萎下胸中所蘊豈止科擧一事而已
복 수 지 기 위 하 흉 중 소 온 기 지 과 거 일 사 이 이
哉
재

◁답성호원▷

제가 비록 뜻과 기개는 위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슴속에 쌓은 것이 어찌 과거시험 한 가지에만 그치고 말겠습니까?

Although my will and spirit are weakened, how can the things accumulated in my heart be limited to pass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only?

*僕: 편지 등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어 일컫는 말

*雖: 비록

*志氣: 뜻과 기백

*萎: 시들다

*下: 아래

*胸中: 가슴 속

*蘊: 쌓다

*所: 동사(구) 앞에서 동사를 명사화하는 역할

*豈: 어찌~하겠는가?

*止: 머물다

*而已: 문장 뒤에서 의미를 단정하는 어조사

*哉: 문장 뒤에서 의문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어조사

해설

친구 성혼(成渾, 1535~1598)에게 보내는 첫 번째 답장에 나오는 말이다. '가슴 속에 쌓은 것'은 뜻으로서 꿈이라 할 수 있다. 행간의 의미는 선비가 품은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거쳐서 벼슬해야 하지만, 벼슬 그 자체만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선생은 『격몽요결』에서 과거 공부로 인해 성인이 되는 일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였는데, 곧 학문의 목표는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인간이 되는 일이라는 가르침이다.

曰主上欲復三代之治則當以何者爲先務
왈 주 상 욕 복 삼 대 지 치 즉 당 이 하 자 위 선 무
曰莫先於立志自古有爲之君莫不先定其志
왈 막 선 어 입 지 자 고 유 위 지 군 막 불 선 정 기 지

◁동호문답▷

문: 주상께서 삼대의 정치를 회복하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무엇에 먼저 힘써야 할까요?

답: 뜻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예전부터 훌륭한 임금은 먼저 그 뜻을 정하셨습니다.

Q: If the Lord wants to restore the reign of the Three Dynasties, what should he do first?

A: He must first set his will. From time immemorial, a king with a big vision set his will first.

*曰: 말하다 *主上: 임금

*欲: ~하려고 하다 *復: 회복하다

*三代之治: 유학에서 이상으로 삼는 하 · 은 · 주 삼대의 정치

*當: 마땅히 *以~ 爲~: ~을 ~로 삼다

*先務: 먼저 해야 할 일 *莫: 없다

*有爲之君: 큰일을 하고자 하는 임금

해설

주인과 손님의 대화로 이루어진 『동호문답』(東湖問答) 속의 대화 가운데 하나이다. 『동호문답』은 선생이 정치의 이상을 대화체로 쓴 책으로서, 나라에서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하게 한 '사가독서'(賜暇讀書)라는 제도의 결과물이다.

뜻을 세움에 있어서 인간 개인으로는 성인이 되는 것이지만, 임금은 성인이면서 왕이어야 했다. 보통 성군(聖君)이라는 말도 그런 뜻이다. 학문적 용어로는 '안으로는 성인의 인격을 갖추고 밖으로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이다.

선생이 선조에게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지어 바친 것도 그런 왕이 되라고 한 일이다.

殿下先立大志必以聖賢爲準三代爲期
전 하 선 립 대 지 필 이 성 현 위 준 삼 대 위 기

◁성학집요▷

전하께서는 먼저 큰 뜻을 세우시되 반드시 성현을 표준으로 삼으시며, 삼대와 같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 기약하소서.

Please, promise me that your Majesty will set a big will first, be sure to take saint as the standard, and make sure that you will make the world like the Three Dynasties.

*殿下: 임금을 부르는 말　　*先: 먼저
*立大志: 큰 뜻을 세우다　　*必: 반드시
*聖賢: 성인과 현인　*以~爲~: ~을 ~로 삼다
*準: 표준, 법도　　*三代: 하 · 은 · 주 삼대
*期: 기약(하다)

해설

선조 임금께 올리는 『성학집요』 속의 글이므로 눈앞에 임금이 있듯이 말하고 있다.

'성현을 표준으로 삼으시며'라는 말은 내면으로는 성인이 되라는 뜻이고, '삼대와 같은 세상을 만들 것'은 훌륭한 왕이 되라는 뜻으로, 합쳐 말하면 성군이 되라는 뜻이다.

유학은 고대의 하(夏) · 은(殷) · 주(周) 삼대를 자주 일컬어 이상 정치의 모델로 삼았다. 이 삼대의 모든 시기가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현대 리더십 이론도 더욱 진화하여 이 성군과 같은 자질과 역량을 요구한다.

02

뜻이란 무엇인가?

What is will?

이 장은 뜻을 세움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설명한다.
곧 의(意)와 지(志), 정(情)과 성(誠) 및 기(氣)의 개념 등이 그것이다.

志者氣之帥也志一則氣無不動
지 자 기 지 수 야 지 일 즉 기 무 부 동

◁성학집요▷

뜻이란 기의 장수입니다. 뜻이 한결같으면 기는 움직이지 않음이 없습니다.

The will is the leader of the mental power. If the will is constant, there is no power that is not moving.

*志: 뜻, 의향 *~者: ~라는 것

*氣: 에너지, 힘 등을 뜻하며 여기서는 마음의 에너지

*之: ~의 *帥: 장수

*也: 일반적으로 평서문 뒤에 붙는 어조사

*一: 한결같다

*則: 조건절과 주절을 잇는 접속사

*無不: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이중 부정을 나타냄

해설

『성학집요』「수기」에 나오는 말로서 지(志)와 기(氣)의 관계를 말하였다.

뜻이란 달리 말하면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이다. 기는 자연계의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맹자』의 "뜻이란 기의 장수이고 기는 몸에 가득 찬 것"이라는 말에서 가져왔다.

이 글에서는 뜻이 확고하면 기는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쓰였다. 장수는 군졸을 거느리니 뜻이 기를 통솔한다는 의미로, 인간의 강한 의지가 심기(心氣)를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다.

如志無誠則不立
여 지 무 성 즉 불 립

◁성학집요▷

만약 뜻이 성실하지 못하면 서지 않습니다.

If your will is not sincere, it will not be set.

*如: 만약 *志: 뜻, 의향

*無: 없다 *誠: 정성, 성실

*則: 조건절과 주절을 잇는 접속사

*不: 동사나 형용사를 부정하는 조동사

*立: 서다, 세우다

해설

『성학집요』「수기」에 나오는 말이다.

성실로 옮긴 '성'(誠)의 철학적 의미는 『중용』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로, "성실한 것은 하늘의 길이고, 성실하려는 것은 인간의 길이다"라는 말에 등장한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으로 풀이한다. 곧 자연에서 네 계절이 거짓 없이 순환하여 만물을 생성하는 일과 똑같이 인간에게도 속임과 거짓이 없는 마음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실이다.

본문은 인간의 뜻이 이렇게 성실하지 않으면 그 뜻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찌 좋은 뜻을 거짓되게 세우겠는가?

所謂立志者必奮然振起大有爲之志
소 위 입 지 자 필 분 연 진 기 대 유 위 지 지

◁옥당논군덕사사차▷

이른바 뜻을 세운다는 것은 큰일을 하고자 하는 뜻을 꿋꿋하게 일으키는 일입니다.

The so-called setting one's will is a matter of steadfastly raising the will to do great things.

*所謂: 이른바 *立志: 뜻을 세우다
*者: ~하는 것 *必: 반드시
*奮然: 떨쳐 일어나는 기운이 세찬 모양
*振起: 떨쳐 일으키다
*有爲之志: 큰일을 하고자 하는 뜻

해설

이 글은 임금께 간단히 올리는 상소 형식을 빌린 것으로서 「옥당논군덕사사차」(玉堂論君德四事劄)에 등장하는 말이다.

선생이 평소 뜻을 세운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것은 자잘한 꿈이 아니라 큰 꿈을 꾸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따위가 아니라, 성현이나 위대한 군주가 되어 만백성을 위하고 미래의 만민에게 인생의 표준이 되는 가르침을 세우는 그런 꿈을 꿋꿋하게 꾸는 일을 말한다. 이것이 선생이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뜻의 참된 의미이며 오늘날로 말하면 훌륭한 리더의 꿈과 비전이다.

動志動氣皆兼善惡爲得
동 지 동 기 개 겸 선 악 위 득

◁어록 하▷

뜻을 움직이고 기를 움직이는 것은 모두 선과 악을 겸해 말해야 합니다.

Anything that moves will and moves the energy of the mind must be said in terms of both good and evil.

*動: 움직이다

*氣: 여기서는 몸에 꽉 찬 기운(힘, 즉 에너지)의 의미

*皆: 모두

*兼: 겸하다

*善惡: 선과 악

*爲: 되다

*得: 얻다, 분명해지다

해설

이 글의 기는 자연의 그것이 아니라 몸속에 가득 찬 기운이다.

이 글을 이해하려면 『맹자』에서 한 말을 알아야 한다. 곧 "뜻이 기를 움직이고 기가 뜻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뜻인 의지가 한결같으면 기를 움직일 수 있고, 몸에 질병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기가 한결같아 뜻을 움직이는 사례이다.

이것처럼 선한 의지가 꿋꿋하면 기를 움직일 수 있는 반면, 마음에 나쁜 기운이 가득 차도 뜻을 움직일 수 있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所謂志有定向者是非明白向善而背惡也
소 위 지 유 정 향 자 시 비 명 백 향 선 이 배 악 야

◁어록 하▷

이른바 '뜻에 정해진 방향이 있다'라는 말은 시비가 분명하여 선을 향하고 악을 등진다는 뜻입니다.

The so-called 'one's will has a set direction' means that right or wrong is clear, so one turns to the good and turns against the evil.

*所謂: 이른바 *有: 소유하다
*定: 정하다 *向: 향하다
*是非: 옳음과 그름 *背: 등지다
*而: 보통 '~하고' 때로는 '~하나'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

해설

이 글은 주희(朱熹) 『대학집주』를 인용한 말이다. 뜻을 세우는 일은 정해진 방향이 있어야 하고, 그때의 뜻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여 선을 지향하고 악을 등져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선생이 말한 '뜻을 세운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뜻이나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류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려는 것도 선생이 의도하는 입지와 무관한 것이다.

오늘날 리더로서 가진 비전도 자기 조직의 이익만 추구할 일이 아니라, 인류의 삶과 복지에 보탬이 되어야 비로소 선생의 뜻과도 부합한다.

志者心之所之雖爲惡之事其心必有所之以
지 자 심 지 소 지 수 위 악 지 사 기 심 필 유 소 지 이
此而言則亦不可謂非志也
차 이 언 즉 역 불 가 위 비 지 야

◁어록 상▷

지(志)는 마음이 가는 곳입니다. 비록 나쁜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은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지(志)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The will is where the mind is directed. Even if you do bad things, your mind always has a place to go. Having said this, I can't help but also say that it is the will.

*之: 어조사, 가다 *所+동사: 동사를 명사화함
*雖: 비록 ~하더라도 *爲: 하다
*事: 일 *其: 그
*以: ~으로써, ~을 가지고를 뜻하는 어조사
*此: 이것 *不可: ~하지 않을 수 없다
*非: 명사나 명사구 앞에 붙어 ~가 아니다를 나타냄
*也: 평서문의 뒤에서 '~이다'를 나타냄

해설

지(志)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보통 '뜻'이라 풀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뜻이 좋든 나쁘든 어떤 방향성을 가졌을 때 명칭상 지(志)라고 한다는 의미이다. 이미 주희의 『논어집주』에서 지(志)를 '마음이 가는 곳'으로 풀었고, 달리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도 풀었다.

어쨌든 마음이 가는 곳에는 좋고 나쁨이 있으나, 선생이 '뜻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할 때의 입지에는 나쁜 의미가 전혀 없다.

意則是情之發出因緣計較者志則是指一處
의 즉 시 정 지 발 출 인 연 계 교 자 지 즉 시 지 일 처
一直趨向者
일 직 추 향 자

◁어록 하▷

의(意)는 정이 계산하고 비교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발출하는 것이며, 지(志)는 한 곳을 향하여 곧바로 쫓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Thought is something that has been calculated and compared after the emotion started, and the will refers to direct pursuit towards a place.

*意: 뜻, 생각
*情: 마음의 작용
*因緣: ~로 말미암아
*志: 뜻, 의향
*一處: 한 곳
*趨向: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다
*則是: 곧 ~이다
*發出: 드러내 나오다
*計較: 계산하고 비교하다
*指: 가리키다
*一直: 곧바로

해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의지(意志)라는 말은 대체로 영어 will을 번역한 말이지만, 전통적으로 의(意)와 지(志)는 서로 다른 개념을 사용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정(情)이란 감정을 포함한 마음 작용의 총칭이다. 본성이 발동하여 정이 되기도 하고, 외물을 보고 일어나는 감정도 정이 된다. 따라서 의(意)와 지(志) 모두 정의 발동을 말미암는다.

의(意)는 일반적으로 의사(견해), 속마음, 의미, 사념(思念) 따위인데, 여기서는 따지고 계산하고 비교하는 정신 활동과 그 결과(ideas)이며, 지(志)는 어떤 방향으로 곧장 달려가는 마음의 작용이다. '뜻'이라고 할 때는 지(志)만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情與意志皆心之所發而言情二者亦在其中
정 여 의 지 개 심 지 소 발 이 언 정 이 자 역 재 기 중

◁어록 상▷

정(情)과 의(意)와 지(志)는 다 마음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을 말하면 두 가지는 또한 그 가운데 포함됩니다.

Emotion, thought, and will are all triggered by the mind. As for emotion, the two are also included among it.

*情: 마음의 작용 *與: ~와
*意: 뜻, 생각 *志: 뜻, 의향
*皆: 모두 *其: 그것(대명사)
*所發: 발동한 것, 所는 동사를 명사화하는 기능
*而: 접속사 *言: 말하다
*則: 조건절과 주절을 잇는 접속사
*亦: 또한 *在: ~에 있다

해설

정(情)과 의(意)와 지(志)의 의미를 구분한 발언이다. 이는 모두 마음과 관련된 일이라고 앞에서 설명했다.

여기서 정이란 마음 작용의 총칭이므로, 의(意)와 지(志) 모두 정에 포함된다. 정이 적절하게 발동하면 선하지만, 지나치게 발동하거나 너무 미약하게 발동하면 그 정이 선할 수도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발언의 의도는 마음이라고 다 같지 않으니, 지(志)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때의 지는 잡다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선한 일을 지향하는 확고한 의지이다.

03

뜻을 이룰 수 있는 근거

Grounds to achieve one's will

이 장은 뜻을 세움에 있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해당하는 철학은 성리학(性理學)이다.

衆人與聖人其本性則一也 중 인 여 성 인 기 본 성 즉 일 야

◁격몽요결▷

보통 사람과 성인은 본성이 같습니다.

Ordinary people and saints are the same in human nature.

*衆人: 보통 사람
*其: 그(대명사)
*則: 곧 ~이다
*也: '~이다'를 뜻하는 종결사
*與: 와, 더불어
*本性: 타고난 성품, 본성
*一: 하나, 같다

해설

이 말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철학적 근거 가운데 하나이다.

선생의 학문도 일반 철학처럼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같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보통 사람이든 성인이든 타고난 본성은 같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똑같은 성품을 타고났는데, 어떤 이는 성인이 되고 어떤 이는 보통 사람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날 때부터 성인과 보통 사람이 정해졌다면, 성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 없다.

바로 여기서 성인이 되기 위한 선생의 방법이랄까 프로젝트가 있다. 선생의 『성학집요』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人性本善無古今智愚之殊
인 성 본 선 무 고 금 지 우 지 수

◁격몽요결▷

사람의 본성은 선하여 옛날과 지금 사람이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Human nature is good, and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old and the present, between the wise and the foolish.

*人性: 인간의 본성
*善: 착하다
*古今: 옛날과 지금
*愚: 어리석은 (사람)
*殊: 다름, 차이
*本: 본래
*無: 없다
*智: 지혜로운 (사람)
*之: ~의

해설

여기서 말하는 본성이란 자연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말한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말은 원래 맹자의 주장이다.

『맹자』에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언제나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고자 상」)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관점을 계승한 후대 유학은 인간이라면 타고난 본성은 모두 선하다고 본다.

이렇게 성인이나 보통 사람이나 본성이 선하다면, 보통 사람도 성인이 될 가능성에 훨씬 가까워진다. 곧 논리적으로 생각해볼 때, 본성이 원래 선하므로 그 선을 발휘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이다.

志之立知之明行之篤皆在我耳豈可他求哉
지 지 립 지 지 명 행 지 독 개 재 아 이 기 가 타 구 재

◁격몽요결▷

뜻을 세우고 밝게 알고 도탑게 행동하는 일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을 뿐입니다. 어찌 다른 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It is all up to me to set a will, to know brightly, and to practice earnestly. How could I find it anywhere else?

*志之立: 立志인데 志를 강조하기 위해 도치하면서 之가 들어간다. 知之明과 行之篤도 같은 용법이다.

*篤: 도탑다 *皆: 모두

*在: 달려 있다 *豈: 어찌

*耳: 문장 뒤에서 단정하는 어조사

*他: 다른(것, 곳) *求: 구하다, 찾다

*哉: 문장 뒤에서 감탄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조사

해설

뜻을 세우는 '입지'(立志)와 밝게 아는 '명지'(明知)와 도탑게 행동하는 '독행'(篤行)이 모두 나에게 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는 성인이 될 가능성이 모두 내 안에 본성으로 갖추어져 있어서 나온 발언이다. 역사상 성인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은 그 가능성이 있어도 마음과 행동의 바탕을 이루는 성질 또는 성격의 제약으로 그대로 발휘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부가 필요하다.

聖人可學而至
성 인 가 학 이 지

◁성학집요▷

성인은 배워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Anyone can become a saint by learning.

*聖人: 성인

*可: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

*學: 배우다

*而: 접속사

*至: 이르다, 도착하다

해설

이 말은 선생이 성리학을 완성한 남송의 철학자 주희(朱熹)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배워서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은 공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공자 자신이 "나는 날 때부터 잘 아는 천재가 아니라, 옛것을 좋아해 민첩하게 찾았다"(『논어』, 「술이」)라고 하여, 학문을 좋아해 배워서 높은 경지에 올랐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철학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록에 자세하게 기술했다. 여기서는 배움을 통해 가능성을 말했는데, 그 배움의 내용이란 다름 아닌 '학문과 수양'이다. 곧 인간의 후천적 노력이 성인이 되는 방법인 셈이다.

孟子曰人皆可以爲堯舜豈欺我哉
맹 자 왈 인 개 가 이 위 요 순 기 기 아 재

◁격몽요결▷

맹자가 "사람은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으니, 어찌 나를 속이겠습니까?

Mencius said, "Anyone can become Yao and Shun." How could he deceive me?

*曰: 말하다, 이르다 *皆: 모두

*可以: 주어 뒤에 붙어 가능성을 나타내는 숙어

*爲: 되다 *堯舜: 중국 고대의 성군

*豈: 어찌 *欺: 속이다

*我: 나

*哉: 의문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사

해설

"사람은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맹자』, 「고자 하」)라는 말은 원래 누군가 맹자에게 한 질문이었다. 곧 "'사람은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 같은데, 그런 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맹자가 "그렇소"라고 대답한 뒤로 맹자의 말로 통하게 되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 가능성의 철학적 근거는 맹자 자신의 성선설이다.

여기서 선생은 맹자의 가르침을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人之容貌不可變醜爲妍身體不可變短爲長
인 지 용 모 불 가 변 추 위 연 신 체 불 가 변 단 위 장
惟有心志則可以變愚爲智變不肖爲賢
유 유 심 지 즉 가 이 변 우 위 지 변 불 초 위 현

◁격몽요결▷

추한 외모를 아름답게 바꿀 수 없고, 작은 키를 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에 품은 뜻만은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변화시키고 못난 것을 현명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You cannot change your appearance from ugly to beautiful, and cannot change your stature from short to tall. Only your will of the heart can turn your foolishness into wisdom and stupidity into sagacity.

*容貌: 외모
*變: 바꾸다
*妍: 곱다, 예쁘다
*長: 길다, 키가 크다
*心志: 마음의 뜻
*智: 지혜롭다
*可以: ~할 수 있다
*不可: ~할 수 없다
*醜: 추하다
*短: 짧다, 기가 작다
*惟: 오직
*愚: 어리석다
*不肖: 못나다
*賢: 현명하다

해설

선천적으로 타고난 외모나 체격 따위는 후천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오직 마음의 품은 뜻으로 지혜롭고 덕이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 철학적 근거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지식을 쌓고 지혜를 깨달으면서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바꾸기도 한다. 이는 학습이론이나 경험과학에서 줄곧 주장한 내용이다.

그래서 인간은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 공자 이후 유가들이 배움을 그토록 강조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人生氣稟有萬不齊而勉知勉行則成功一也
인 생 기 품 유 만 불 제 이 면 지 면 행 즉 성 공 일 야

◁성학집요▷

사람의 타고난 기품은 제각기 다르지만, 아는 일과 실천에 힘쓰면, 공을 이루는 것은 다 같습니다.

Each person's material force with which man is endowed at birth is different. But if you put effort into what you know and practice, success is the same for everyone.

*人生: 인간
*有: 가지고 있다
*勉: 힘쓰다
*行: 실천, 행동
*氣稟: 타고난 기질과 성품
*不齊: 고르지 않다, 다르다
*知: 앎, 아는 일
*成功: 성공, 공을 이루다

해설

인간의 본성이 같다고 가정해도, 사실 인간의 현실적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 인간에게는 같은 점이 있음과 동시에 다른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같은 점은 본성이지만, 그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를 기품(氣品)이라고 보았다. 기품은 실제로 각 개인이 지닌 육체적 특성과 함께 성격 · 기질 · 성향 · 지능 · 능력 따위를 가리킨다.

그 기품의 차이를 극복하여 성인이 되는 방법이 바로 앎과 실천, 곧 학습과 수양이다. 그래서 선생은 힘써 알고 실천하면 그 결과 누구나 동일하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04

뜻을 이루는 방법

How to make a will come true

이 장은 뜻을 이룰 수 있는 길, 곧 성인이 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주로 공부 내용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曰志旣立矣當何所事
왈 지 기 립 의 당 하 소 사
曰立志之後莫如務實
왈 립 지 지 후 막 여 무 실

◁동호문답▷

문: 뜻이 섰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답: 뜻이 선 다음에는 실행에 힘쓰는 것이 우선입니다.

Q: What should I do after I set my will already?

A: After you set your will, the first thing to do is to put effort into implementing it.

*曰: 말하다, 이르다 *旣: 이미
*當: 마땅히, 당연히 *何: 무엇
*所事: 일삼는 것
*矣: 단정, 결정을 나타내는 어조사
*莫如: ~만 한 것은 없다(비교의 최상급)
*務實: 실행 또는 실제적인 일에 힘쓰는 것

해설

뜻을 세운 뒤에 바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실제적인 일 또는 실행에 힘쓰는' 일이다.

그 원문인 무실(務實)은 대개 역행(力行)과 함께 붙여서 무실역행(務實力行)이라는 사자성어로 자주 쓰는데, 의미는 같다. 이 무실역행 사상은 훗날 안창호 · 최남선 등이 일제강점기 때 청년 학우들을 분발시키면서 부활하였다.

목표를 세웠으면 실행에 옮기는 일이 그 성취의 첫 관문이다.

學者旣立作聖之志則必須洗滌舊習一意向
학 자 기 립 작 성 지 지 즉 필 수 세 척 구 습 일 의 향
學檢束身行
학 검 속 신 행

◁학교모범▷

배우는 사람이 성인이 되겠다는 뜻을 세웠다면, 반드시 낡은 습관을 씻어 버리고 한결같은 뜻으로 학문을 지향하며 몸가짐과 행동을 단속해야 합니다.

If the learner has set his will on becoming a saint, he must wash away his old habits and pursue learning with a consistent mindset, and must control his attitude and behavior.

*學者: 배우는 사람
*立: 세우다
*志: 뜻
*洗滌: 씻다
*一: 한결같은
*向: 향하다
*身行: 몸가짐과 행동
*旣: 이미
*作: 되다, 만들다
*須: ~해야 한다
*舊習: 낡은 습관
*意: 뜻
*檢束: 단속하다

해설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써 낡은 습관을 버리고 학문에 뜻을 두고 몸가짐과 행동을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초학자의 일이다. 『격몽요결』에서도 「혁구습」(革舊習)장이 있는데 비교적 구체적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내용은 『학교모범』 속의 글이므로 서로 유사하다.

이 말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나에게 있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라는 말로 통한다. 나쁜 습관과 버릇을 제거하여 행동을 목표에 맞게 통제하는 일이 그것이다.

入道基本在立志遠大存心篤實
입 도 기 본 재 입 지 원 대 존 심 독 실

◁시정사학도(示精舍學徒)▷

도에 들어가는 기본은 입지가 원대하고 마음을 보존하는 일이 독실한 데 달려 있습니다.

The basics of entering the Way depend on setting a great will and being devout to preserve one's true mind.

*入: 들어가다
*基本: 기본
*遠大: 원대하다
*篤實: 독실하다
*道: 길, 진리
*在: 달려 있다
*存: 보존하다

해설

성현이 되는 방법으로 뜻도 원대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독실하게 존심(存心)하는 일이다.

'존심'이란 일찍이 『맹자』에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군자가 남과 다른 까닭은 존심 때문이다"(「이루 하」)라고 했으니, 맹자가 말한 마음은 대체로 인간의 착한 본심을 뜻하므로, 존심이란 그 '착한 본심을 보존하는 일'이다. 또 『맹자』의 다른 곳에서 '방심'(放心)도 말했는데, 곧 이 착한 본심을 놓아버렸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미는 착한 본심을 독실하게 보존하는 일이 성현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목표도 원대해야 하지만, 그 비전이 주위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志不大心不篤則雖日聞警策日熟講論只是說話
지 부 대 심 부 독 즉 수 일 문 경 책 일 숙 강 론 지 시 설 화

◁시정사학도▷

뜻이 크지 않고 마음이 독실하지 않으면 비록 날마다 경계하는 방책을 듣고 날마다 익숙하게 강론해도 다만 말뿐입니다.

If your will is not great and your heart is not devout, even if you listen to the precautions that you are guarding against every day and accustomed to discuss things and deliberate every day, those things are just words.

*不: ~아니다.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대개 '부'로 읽는다

*篤: 독실하다

*雖: 비록

*日: 날마다

*聞: 듣다

*警策: 경계하는 방책

*熟: 익히다

*講論: 강론

*只: 다만

*是: ~이다

*說話: 입으로 하는 말

해설

큰 뜻과 독실한 마음을 강조하였다. 성인이 되는 일은 당연히 큰 뜻이다. 이 글은 정사(精舍)의 학생들에게 훈시(訓示)하는 말이므로 『격몽요결』과 『학교모범』에 나오는 서두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큰 뜻을 이루려면 우선 마음이 독실 · 돈독해야 하는데, 그 의미는 마음이 단단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말이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성공하려면 일단 목표가 원대해야 하고, 그것을 성취하려는 개인과 리더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誠能志大心篤尋箇是處行之則終日云爲皆
성 능 지 대 심 독 심 개 시 처 행 지 즉 종 일 운 위 개
是道理
시 도 리

◁시정사학도▷

참으로 뜻이 크고 마음이 돈독하여 옳음을 찾아 행동한다면, 종일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모두 도리입니다.

Indeed, if your will is great and your heart is devout and you are able to seek good deeds and act, then speaking and acting all day are the principals.

*誠: 참으로
*篤: 돈독하다
*箇: 이, 어떤
*處: 곳
*云爲: 말과 행동
*能: ~할 수 있다
*尋: 찾다
*是: 옳다
*之: 그것(대명사)
*皆: 모두

해설

큰 뜻을 세웠다면 마음을 돈독하게 하여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고 행동해야 도리에 어긋남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실 옳음을 찾는 일은 단순하지 않다. 이 또한 앎을 이루는 공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찍이 『대학』에서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할 일의 맨 앞 조목에 두어 강조하였다.

이는 현대의 도덕교육에서 실천에 앞서 가치 탐구를 앞세우는 방법과도 통한다. 이처럼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와 그 성취의 과정도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하고 오래간다.

何苦而不爲賢智以虧損天所賦之本性乎人
하 고 이 불 위 현 지 이 휴 손 천 소 부 지 본 성 호 인
存此志堅固不退則庶幾乎道矣
존 차 지 견 고 불 퇴 즉 서 기 호 도 의

◁격몽요결▷

무엇이 괴롭다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되지 않고 천부적 본성을 훼손합니까? 사람이 이 뜻을 보존하되 견고하게 하여 물러나지 않으면, 도에 가까울 것입니다.

What suffering prevents you from becoming wise and intelligence, so that you undermine your nature endowed from heaven? If a person firmly preserves this will and does not withdraw, it will be close to the Way.

*何: 무엇, 어찌 *苦: 괴로워하다, 쓰다

*賢智: 현명하고 지혜롭다 또는 賢者와 智者

*虧損: 훼손하다 *天所賦: 하늘이 부여한 것

*本性: 본성

*乎: 의문, 감탄의 문장 뒤에 붙는다('~에'를 뜻하는 어조사)

*存: 보존하다 *堅固: 견고하다

*退: 물러나다 *庶幾: 거의 가깝다

해설

이 글은 성현이 될 수 있는 공부 방법으로 뜻을 견고하게 하여 물러나지 않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천부적 본성'이란 앞에서 설명한 성현이 될 수 있는 근거이다. 곧 맹자의 성선설에 따라 착한 본성을 이미 타고났다는 뜻이다.

흔히 사람들은 큰 뜻을 세워 조금 실천해보고 잘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데, 그 원인은 뜻을 견고하게 보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당신이 조직의 리더라면 주변의 비난이나 평판에 결심이 흔들려 물러나서는 안 된다.

問欲立志者當何以用功
문 욕 립 지 자 당 하 이 용 공
曰誠則志自立而以敬持之可也
왈 성 즉 지 자 립 이 이 경 지 지 가 야

◁어록 상▷

문: 뜻을 세우려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답: 성실하면 뜻이 저절로 서고, 경으로 지속해야 합니다.

Q: How should a person who wants to set his will study?
A: If you are sincere, your will will be set by itself, and you should continue with earnestness.

*問: 묻다
*當: 마땅히, 당연히
*用功: 공부하다, 노력하다
*自立: 자립, 스스로 서다
*持: 지속하다, 유지하다
*可: ~해야 한다
*欲: ~하려고 하다
*何以: 어떻게, 무엇으로써
*誠: 성실하다
*敬: 잡도리하다
*之: 그것

해설

성현이 되는 공부 방법으로 성실과 경을 등장시켰다.

이것은 수양의 목표와 과정인 성(誠)과 경(敬)이다. 성(誠)은 『중용』의 "성실한 것은 하늘의 길이요, 성실하고자 노력하는 일은 인간의 길이다"라는 말에 등장하며,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과 행동으로서, 수양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 경지라 할 수 있다. 경(敬)은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자기의 잘못된 마음을 잡도리하는 역할, 곧 외물에 달려가는 마음을 붙잡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이다.

마음과 행동이 거짓 없고 진실하면 삶의 목표가 저절로 생기지 않겠는가? 그 또한 성인의 길이다.

主上誠立此志則以聖人爲標準矣以聖人爲
주 상 성 립 차 지 즉 이 성 인 위 표 준 의 이 성 인 위
標準而必欲學之然後三代之治可復也
표 준 이 필 욕 학 지 연 후 삼 대 지 치 가 복 야

◁동호문답▷

임금께서 참으로 이런 뜻을 세운다면, 성인을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인을 표준으로 삼고 반드시 배우려고 한 뒤에야 삼대의 정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If the king really sets his will on this, he must make the saint his standard. He can restore the reign of the Three Dynasties only after he takes the saint as his standard and tries to learn.

*主上: 임금 *誠: 참으로
*標準: 표준 *矣: 종결 어조사
*以~爲~: ~을 ~로 삼다 *必: 반드시
*欲: ~하려고 하다 *然後: ~한 뒤에
*三代之治: 하 · 은 · 주 삼대의 정치 곧 이상 정치
*可: ~할 수 있다 *復: 회복하다

해설

임금의 입지를 말한 뒤 성인이 되려면 먼저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호문답』 속의 손님과 주인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말이다. 배움이 성인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그것을 이루어 성인이 되면 유학의 이상 정치도 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논리상 당연한 귀결이다.

개인이나 리더도 세운 목표를 이루려면, 줄곧 공부해야 한다. 그것은 목표에 도달할 수단과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상황 및 문제 파악과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必也君志先定典學誠身
필 야 군 지 선 정 전 학 성 신

◁성학집요▷

반드시 임금의 뜻을 먼저 정하여 항상 학문에 힘쓰며 몸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The king must first set his will, always devote himself to learning and be sincere.

*必也: **틀림없이, 꼭**
*先: **먼저**
*典: **법**
*君志: **임금의 뜻**
*定: **정하다**
*誠: **성실하다**

해설

임금이 뜻을 세운 뒤에 할 일을 말하고 있다.

그 일은 학문에 힘쓰고 몸을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곧 배움과 수양이다. 몸을 성실하게 한다는 말은 생각과 행동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배움과 몸을 성실하게 하는 일이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려 준다.

원문 전학(典學)은 '임금이 항상 학문에 힘씀'이라는 뜻으로 『서경』(書經), 「열명」(說命)편에서 부열(傅說)이 고종(高宗)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배움에 힘쓴다면[典于學], 그 덕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닦아질 것이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후에 제왕의 학문을 의미하게 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수양은 내면의 성실과 아울러 타인 존중 · 교감 · 소통 · 설득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誠欲擴充是心以全大孝則立志不可不篤
성 욕 확 충 시 심 이 전 대 효 즉 입 지 불 가 불 독

<옥당논군덕사사차(玉堂論君德四事箚)>

참으로 이 마음을 넓혀서 큰 효도를 온전하게 하시려면, 독실하게 뜻을 세워야 합니다.

In order to truly broaden this mind and perfect great filial piety, you must be devout in setting your will.

*誠: 참으로
*擴充: 넓혀 채우다
*大孝: 큰 효도
*篤: 독실하다
*欲: ~하려고 하다
*全: 온전하게 하다
*不可不: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설

큰 효도를 온전히 하려면 입지가 독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문의 '이 마음을 넓혀서'라는 말은 『맹자』에 보인다. 곧 도살장에 벌벌 떨며 끌려가는 소를 차마 불쌍해서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그 선한 마음을 넓히고 채워서' 백성에게 어진 정치가 미치게 하라는 말에 등장한다. '이 마음'이란 인간의 착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본마음을 가리킨다.

'큰 효도'는 『맹자』에 나오는 말로, 천하를 감화·교화시킨 순임금의 '큰 효도'를 말한다. 이는 한 개인의 효도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라, 천하 사람들을 바른 데로 이끄는 리더의 참모습이다.

聖賢開示後學明白諄切苟因其言循序漸進
성 현 개 시 후 학 명 백 순 절 구 인 기 언 순 서 점 진
則爲聖爲賢
즉 위 성 위 현

◁성학집요▷

성현이 후학에게 밝게 알려 준 가르침이 명백하고 친절합니다. 그 말씀에 의거하여 순서대로 점차 나아가면 성인도 되고, 현인도 됩니다.

The teachings that sages gave brightly to juniors are clear and kind. If you progress gradually in the order of those words, you will become a saint or a sage.

*開: 열다
*後學: 뒤에 배우는 사람
*諄: 정성스럽다
*苟: 진실로, 만약
*循序: 차례를 따르다
*爲: 되다
*賢: 현인
*示: 보이다, 보여주다
*明白: 명백하다
*切: 간절하다
*因: 말미암다, 의거하다
*漸進: 점차 나아가다
*聖: 성인

해설

뜻을 이루려면 옛 가르침을 따르라는 말이다.

곧 유교 경전과 그 경전을 풀이하는 성인과 현인의 말을 잘 따르면 성인도 현인도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성현이 되는 방법은 그 논리가 매우 단순하다. 성현의 말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현대의 개인과 리더들은 고려해야 할 일이 참 많다. 그래서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맞는 이론과 가르침을 이전 자료에서 잘 선택하여 따를 수밖에 없다. 미래는 미리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苟能深信聖賢之言矯治不美之質實下百千
구 능 심 신 성 현 지 언 교 치 불 미 지 질 실 하 백 천
之功終無退轉之時則大路在前直指聖域
지 공 종 무 퇴 전 지 시 즉 대 로 재 전 직 지 성 역

◁성학집요▷

진실로 성현의 말을 깊이 믿고 좋지 않은 기질을 바로잡되, 실지로 백배 천배 노력하여, 끝내 물러나는 때가 없으면, 큰길이 앞에 나타나 성인의 경지를 곧바로 가리킬 것입니다.

Truly, if you deeply believe in sages's words, correct your bad corporeal matter, and try a hundred times and a thousand times, in fact, never give up, the main road will appear in front of you and indicate you the state of being a saint.

*苟: 진실로, 만약
*深信: 깊이 믿다
*治: 다스리다, 다루다
*下: 착수하다
*終: 마침내
*大路: 큰길
*指: 가리키다
*能: ~할 수 있다
*矯: 바로 잡다
*質: 기질, 바탕
*功: 노력, 공부
*退轉: 물러나다
*直: 곧바로
*域: 지경, 경계

해설

성인이나 현인이 되는 방법은 좋지 않은 기질을 바로잡고, 천배 백배의 노력을 하고, 물러나지 않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백배 천배 비유는 『중용』에 나온다.

여기서 선생의 그 유명한 기질 변화론을 말하는 '교기질'(矯氣質)의 사상이 들어 있다. 기질이란 쉽게 말해 성격 · 성향이다. 기질을 바로잡는다는 말은 원래의 선한 성품으로 되돌린다는 뜻이다.

이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선천적 기질의 영향을 받은 나쁜 성품을 후천적 노력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는 대체로 교육과 수양을 통해 이루어진다.

窮理以明善篤志以帥氣涵養以存誠省察以
궁 리 이 명 선 독 지 이 솔 기 함 양 이 존 성 성 찰 이
去僞以治其昏亂
거 위 이 치 기 혼 란

◁성학집요▷

이치를 탐구하여 선을 밝히고, 뜻을 돈독하게 하여 기를 통솔하며, 함양하여 성실을 보존하고, 성찰하여 거짓을 버려서, 어둡고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You must exhaustively study Principal to illuminate the good, lead the mental energy with a earnest and sincere will, self-cultivate the nature to preserve sincerity, examine yourself and cast away lies, and control the dark and dizzy mind.

*窮理: 이치를 탐구함
*明善: 선을 밝힘
*帥氣: 기를 통솔함
*存誠: 성실을 보존함
*去僞: 거짓을 제거함
*以: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어조사
*篤志: 뜻을 돈독하게 함
*涵養: 잠겨 기름
*省察: 되돌려 살핌
*昏亂: 어둡고 혼란함

해설

성인이 되는 공부의 종류로서 궁리(窮理)와 함양(涵養)과 성찰(省察) 등을 등장시켰다.

궁리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는 일이다. 함양이란 본성이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으로 발동하기 이전의 공부로서, 마음이 천리(天理)에 푹 잠겨 그것을 보존하는 일이다. 천리란 성실 그 자체로 거짓 없이 진실하다. 성찰이란 외부 사물을 만나 감정이 이미 드러난 이후의 공부로서, 그 감정이 지나쳤거나 모자람이 없었는지 되돌아 살피는 일이다.

또 '돈독한 뜻으로 기를 통솔한다'라는 말은 세운 뜻을 독실하게 하여 그 뜻이 마음을 온통 지배한다는 의미이다.

修己旣至而心志一乎內容貌莊乎外言語動
수 기 기 지 이 심 지 일 호 내 용 모 장 호 외 언 어 동
作一循乎禮
작 일 순 호 례

◁성학집요▷

몸을 닦는 일이 지극해지면 안에서는 마음에 품은 뜻이 한결같이 되고, 밖으로는 용모가 장중해지며 말과 행동이 한결같이 예의에 맞게 됩니다.

If cultivating your moral virtues and good actions has become extreme, the will in your heart will become unchanging on the inside, and your appearance become more majestic on the outside, and your words and actions will be consistent with courtesy.

*修己: 몸을 닦다
*至: 지극하다
*一: 한결같이
*莊: 장중하다
*循: 따르다
*旣: 이미
*心志: 마음에 품은 뜻
*容貌: 용모
*言語動作: 말과 행동
*禮: 예의, 예법

해설

임금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수기(修己), 곧 자기 자신의 몸을 수양함에 있음을 말하였다.

수기는 유학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인 '자기 몸을 닦아 남을 다스리는' 일에서 성인이 되는 방법이다. 또 '남을 다스리는' 일은 왕이나 지도자의 역할이다. 용모가 장중하고 말과 행동이 예의에 맞게 되는 것은 수기의 부차적인 효과이다.

현대의 개인에게도 수양이 필요하지만, 특히 리더에게는 고금이 다르지 않다. 그것은 리더가 구성원과 필수적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인데, 곧 도덕적 모범과 솔선수범, 관용과 포용, 소통과 교감 및 동조, 다양성 존중, 협력 발휘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惡念雖實苟能誠志於爲善則治之亦易
악 념 수 실 구 능 성 지 어 위 선 즉 치 지 역 이

◁성학집요▷

나쁜 생각이 비록 마음에 차 있더라도 선을 행하려는 뜻을 성실하게 할 수 있다면 고치기도 쉽습니다.

Even if you have bad thoughts in your heart, it is easy to correct them if you can be sincere in your will to do good.

*惡念: 나쁜 생각
*實: 차다
*誠: 성실하게 하다
*爲善: 선을 행하다
*之: 그것(대명사)
*易: 쉽다
*雖: 비록
*能: ~할 수 있다
*志於: ~에 뜻을 두다
*治: 고치다, 다스리다
*亦: 또한

해설

나쁜 생각을 고치는 방법을 말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과제가 등장한다. 첫째는 무엇이 선인지 알아야 하고, 둘째는 뜻을 성실하게 하는 일이다. 전자는 『대학』에서 말하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격물(格物), 후자는 '뜻을 진실하게 하는' 성의(誠意)와 관련되는데, 의(意) 자를 지(志)로 바꾼 차이만 있다. 성실(誠)은 또 『중용』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몸과 마음의 상태로, 수양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경지이다. 마음이 성실하면 당연히 나쁜 생각도 고쳐진다.

여기서 말한 뜻이란 바로 선을 실천할 의지이다.

05

어떤 뜻이 있는가?

What kinds of will are there?

이 장은 사람마다 갖는 여러 종류의 뜻을 나열하고, 특히 리더로서 임금의 뜻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 뜻의 외연이다.

志小者易以自足以小成爲大成以小知爲大
지 소 자 이 이 자 족 이 소 성 위 대 성 이 소 지 위 대
知則氣隨而輕
지 즉 기 수 이 경

◁동호문답▷

뜻이 작은 자는 스스로 만족하기 쉬워서 작게 이룬 것을 크게 이룬 것으로 여기고, 조금 아는 것을 많이 안다고 여기니, 기(氣)도 그걸 따라 가볍습니다.

A person with a small will is easy to be satisfied with, so he thinks that he achieved great things with small achievements, and thinks he knows a lot with little knowledge, so his personality is flippant along with it.

*小: 작다
*易: 쉽다
*自足: 스스로 만족하다
*以~爲~: ~을 ~로 삼다
*成: 이루다
*氣: 기운, 여기서는 성격
*隨: 따르다
*而: 문장을 잇는 접속사(순접과 역접이 있다)
*輕: 가볍다

해설

뜻이 작은 자를 설명하였다.

뜻이 작으면 작게 이루고, 크면 크게 이루는 일이 현실과 역사에서 겪는 경험이다.

본문의 기(氣)는 원래 하나의 의미로는 번역이 안 되는 말이다.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따지면, 개인의 기질 내지는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오늘날도 성과 달성은 목표의 크기에 비례한다. 물론 개인이든 조직이든 목표가 무조건 커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역량과 가능성에 견주어 최대치를 설정하는 게 좋다는 의미일 것이다.

僕自少懶於爲學十五六前所讀之書無幾十
복 자 소 나 어 위 학 십 오 륙 전 소 독 지 서 무 기 십
七歲始有志於學
칠 세 시 유 지 어 학

◁답성호원▷

나는 어릴 때부터 배우는 데 게을러서 15~16살 이전에 읽은 글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7살에 비로소 학문에 뜻을 두었습니다.

I had been lazy in learning since I was little, so I read very little before the age of 15 or 16. It wasn't until I was 17 that I set my will on study.

*僕: 편지 등에서 자기를 낮추어 일컫는 말

*自少: 어릴 적부터

*懶: 게으르다

*於: ~에, ~에서

*爲學: 학문을 (종사)하다

*讀: 읽다

*書: 글, 책

*無幾: 얼마 없다, 얼마 안 되다

*志於學: 학문(배움)에 뜻을 두다

해설

뜻의 한 종류로서 배움이 그것이다.

원문 '지어학'(志於學)은 『논어』에 "내가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위정」)라는 말의 '지우학'(志于學)에서 가져온 말이다. 여기서 어(於)와 우(于)는 같은 뜻이다.

이처럼 뜻을 두거나 세우는 일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이로 보면 뜻에는 층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생의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려는 뜻은 최종적이며 가장 큰 뜻이다.

苟有篤實奮厲之志則何患其不能有所成就耶
구 유 독 실 분 려 지 지 즉 하 환 기 불 능 유 소 성 취 야

◁답성호원▷

진실로 독실하고 분발하는 뜻이 있다면, 어찌 성취하는 것이 없을까 걱정하겠습니까?

If you truly have a sincere and striving will, why worry that you will not achieve anything?

*苟: 진실로, 만약
*奮厲: 분발하고 힘쓰다
*患: 근심하다
*所成就: 성취한 것
*篤實: 독실하다
*何: 어찌, 의문사
*不能: ~할 수 없다
*耶: 주로 의문문 뒤에 붙는 어조사

해설

뜻의 또 다른 용례가 들어 있는 문장이다.

성현이나 학문 등도 그 대상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태도를 뜻으로 삼은 경우이다. 가령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하거나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 데에 뜻을 두는 것과 같다.

이런 용례는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태도나 자세 따위를 하나의 작은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 금연이나 금주 따위도 그런 목표가 될 수 있다.

治道不升賞罰無章則惡人得志善人困窮固
치 도 불 승 상 벌 무 장 즉 악 인 득 지 선 인 곤 궁 고
理也
리 야

◁답성호원▷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가 올바르지 않아서 상벌에 법도가 없게 되면, 악인이 뜻을 이루고 선인이 곤궁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If the methods of governing the country are not correct and there is no law of reward and punishment, it is natural for the wicked to achieve their desire and for the good to be in need.

*治道: 다스리는 방도

*升: 융성하다, 오르다, 여기서는 좋은 상태에 올라야 하는 곧 '올바르다'는 뜻으로 쓰였다.

*賞罰: 상벌

*章: 법, 법식, 모범

*得志: 뜻을 얻다

*困窮: 곤궁하다

*固: 본디, 한결같은

*理: 이치

해설

악인의 뜻처럼 나쁜 뜻도 있다.

대개 나쁜 사람의 뜻은 그의 욕망과 관련된다. 누가 어떤 뜻을 갖느냐가 관건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는 통치의 원칙이나 규정이다. 그것은 법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리더의 의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원칙이나 규정에 일관성이 없어 무너지면, 악인이 뜻을 이루고 선인이 곤궁해진다.

오늘날도 국가나 기업 등의 조직에서 여전히 통하는 이치이다.

有求治之志無辨姦之明所信非賢所任非才
유 구 치 지 지 무 변 간 지 명 소 신 비 현 소 임 비 재
馴致敗亂者昏君也
순 치 패 란 자 혼 군 야

◁동호문답▷

정치를 잘하려는 뜻은 있으나 간사한 자를 분별하는 총명함이 없고, 신임받는 이가 현명하지 않고 관리들은 능력이 없어서 패망하게 되는 임금은 혼군(昏君)입니다.

The king has the will to rule the country well, but he lacks the intelligence to discern the cunning ministers, and his officials are not capable, so the one who fails is a dark monarch.

*有: ~을 가지고 있다
*求: 구하다, 찾다
*辨姦: 간사한 자를 분별하다
*明: 밝음, 총명
*所信: 믿는 것
*所任: 맡기는 것
*才: 인재, 재주
*馴致: 점차 어떤 상태에 이르다
*敗亂: 무너지고 혼란해지다, 패망하다
*昏君: 사리에 어두운 임금

해설

일반적인 군주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원문의 '求治之志'를 직역하면 '다스림을 구하는 뜻'으로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를 찾는 뜻이다. 어느 군주인들 그러지 않겠는가?

하지만 간사한 소인을 분별하는 밝음이 없으면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고 경고한다.

이는 현대의 리더도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리더가 사물을 통찰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조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리더가 가진 자질의 중요성을 언급한 말이다.

士之兼善固其志也退而自守夫豈本心歟
사 지 겸 선 고 기 지 야 퇴 이 자 수 부 기 본 심 여

◁동호문답▷

선비가 정치를 잘하여 백성과 함께 선하게 되는 것이 본래 뜻입니다. 물러나 자기만 조심하여 지키기만 하는 것이 어찌 그 본심이겠습니까?

It is the original purpose of a scholar to become good with the people through good politics. How could it be his true intention to leave his post and hold on himself?

*士: 선비 *兼善: 같이 선하게 되는 것
*固: 본래의 *退: 물러나다
*自守: 행동이나 말을 스스로 조심하여 지킴, 견고하게 지조를 지킴
*夫: 저, 발어사 *豈: 어찌
*本心: 본마음
*歟: 주로 의문문이나 감탄문 뒤에 오는 어조사

해설

선비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선비가 물러나는 일은 정치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자기만 선하게 사는 일이 선비의 본 의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원문의 겸선(兼善)은 『맹자』의 벼슬길이 "막히면 그 몸을 홀로 선하게 하고, 나아가게 되면 천하 사람들과 선을 함께 한다"(「진심 상」)에 나오는 말이다. "막히면 그 몸을 홀로 선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 글의 자수(自守)와 통한다.

선비의 뜻은 자기의 영달만 꾀하는 세속적 리더와 결이 다르다. 그 뜻은 백성과 상생하는 일이다.

今者流俗得志陞擢
금 자 유 속 득 지 승 탁

◁답성호원▷

지금은 세속의 시류에 영합하는 자들이 뜻을 얻어 승진되고 발탁되었습니다.

Now, the desire of those who fit in with the world's trend was fulfilled, and so they were promoted and selected.

*今者: **지금, 금시**(今時)
*流俗: **세속, 세속에 유행하는 풍조**
*得志: **뜻을 이루다**
*陞: **관직이 오르다**
*擢: **발탁하다**

해설

시류에 영합하는 자들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어느 때인들 그런 자들이 없겠는가? 그들의 뜻은 대개 지위와 명성이나 권세나 재물만을 얻는 데 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자에게 아부 · 아첨하며 뜻을 이루려고 한다.

원대한 뜻을 지닌 선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시류에 영합하지 않아서 좋은 임금을 만나면 뜻을 펼칠 수 있지만, 어두운 임금을 만나면 그러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개 물러난다.

이는 오늘날도 여전히 리더의 자질과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衆邪得志羣賢屛迹流毒生民以啓戎馬
중 사 득 지 군 현 병 적 유 독 생 민 이 계 융 마

◁동호문답▷

간사한 무리가 뜻을 얻고 어진 이들은 자취를 감추어 백성에게 해독이 미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After a cunning group achieved their will, the virtuous disappeared, besides it caused harm to the people, and war broke out.

*衆: 무리
*邪: 간사하다, 간사한 사람
*得志: 뜻을 이루다
*羣: 무리, 떼
*屛迹: 자취를 감추다
*流毒: 해독을 끼치다
*生民: 백성
*以: 어떤 수단 · 방법의 결과를 이끄는 어조사
*啓: 열다
*戎馬: 병기와 말로서 전쟁을 상징

해설

간사한 자들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본문은 북송 때 왕안석(王安石)의 개혁 정치를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여기서 간사한 무리란 왕안석을 중심으로 한 신법당(新法黨)을 말하고, 전쟁이란 금나라가 북송을 침략하고 멸망시킨 일을 말한다.

당시는 개혁을 지지하는 신법당과 개혁을 반대하는 구법당(舊法黨)이 대립하였는데, 구법당의 중심인물은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지은 사마광(司馬光)이다.

후대의 유학자들은 대체로 왕안석을 비판하는 관점을 유지하였고, 선생도 그것을 따랐다.

高祖素慢無禮其所駕馭者皆志乎功名富貴者耳
고 조 소 만 무 례 기 소 가 어 자 개 지 호 공 명 부 귀 자 이

◁동호문답▷

한나라 고조는 평소 거만하고 무례하여 그가 부리는 자는 모두가 부귀공명에 뜻을 둔 자들 뿐이었습니다.

The founder of the Han Dynasty was usually arrogant and rude, and all of his subordinates were only those who had aimed at wealth, nobility, and honor.

*高祖: 여기서는 한나라 고조
*素: 평소
*慢: 거만하다
*無禮: 무례하다
*駕馭: 멍에와 말 부리는 것
*皆: 모두
*志乎: ~에 뜻을 두다
*功名富貴: 부귀와 공명
*耳: 문장 뒤에서 단정하는 어조사

해설

세속적인 뜻에 대하여 소개한 것이다.

출세하여 부귀공명을 누리는 일은 세속의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다. 리더가 훌륭하지 못하면 그 주변엔 그런 사람들만 모인다.

그런 점에서 조직의 최고 리더가 원대한 뜻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타인 존중, 상생과 타인을 위한 봉사, 공동체 구축, 정의감과 정직성 표출 등의 윤리적 자질과 태도가 보이지 않으면, 보통의 구성원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그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노리게 된다.

志在仁義則爲堯舜志在假仁則爲五霸志在
지 재 인 의 즉 위 요 순 지 재 가 인 즉 위 오 패 지 재
逞慾則爲桀紂
영 욕 즉 위 걸 주

◁간원진시사소(諫院陳時事疏)▷

임금의 뜻이 인의(仁義)에 있으면 요순(堯舜)이 되고, 뜻이 인을 빌리는 데 있으면 오패(五霸)가 됩니다. 뜻이 욕심을 부리는 데에 있으면 걸주(桀紂)가 됩니다.

If the will of the king has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 then he becomes Yao and Shun, and if his purpose is to borrow benevolence, he becomes the Five Hegemons. If his intention is to be greedy, he becomes Chieh and Chou.

*仁義: 어짐과 의로움 *假仁: 인을 빌리다
*堯舜: 고대의 성군인 요임금과 순임금
*五霸: 춘추시대의 다섯 패자
*逞: 즐겁다 *慾: 욕심, 욕정
*桀紂: 폭군인 하나라의 걸왕과 은나라 주왕

해설

임금의 뜻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랑과 정의'라 옮길 수 있는 인의(仁義)는 유학에서 말하는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이다. '인을 빌린다'라는 말은 『맹자』의 "힘으로써 인을 빌린 자는 패자이다"(「공손추 상」)에 나오는 말이다. 오패(五霸)는 패자가 된 춘추시대의 다섯 나라의 군주를 말한다. 곧 제(齊)나라의 환공(桓公), 진(晉)나라의 문공(文公), 진(秦)나라의 목공(穆公), 송(宋)나라의 양공(襄公), 초(楚)나라의 장왕(莊王)인데, 양공 대신에 오(吳)나라의 합려(闔閭)를 넣기도 한다.

현대의 조직에서 리더가 어떤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 그와 조직의 성격도 갈린다.

今若以霸道爲志則規模制作必居漢唐之下矣
금 약 이 패 도 위 지 즉 규 모 제 작 필 거 한 당 지 하 의

◁동호문답▷

지금 만약 패도에 뜻을 둔다면 규모와 이루어질 일이 반드시 한나라와 당나라의 이하가 될 것입니다.

Now, if you put your will on the Way of the Despot, the scale and what will be accomplished in the future will surely be inferior to those of the Han and Tang dynasties.

*今: 이제, 지금 *若: 만약

*以~爲~: ~을 ~으로 삼다

*霸道: 인을 빙자하여 폭력으로 다스리는 정치

*規模: 규모, 모범 *制作: 제작하다, 성취

*居: 해당하다 *漢唐: 한나라와 당나라

*矣: 문장 뒤에서 단정하는 어조사

해설

패도에 뜻을 둔 사례이다.

패도(霸道)란 왕도(王道)와 대비되는 인(仁)을 가장하여 폭력으로 다스리는 정치로 『맹자』에 등장하는 말이다. 중국 역사에서 한나라의 문제(文帝)와 경제(景帝)의 정치를 문경지치(文景之治)라 부르고, 당나라 태종 시기의 정치를 정관지치(貞觀之治)라 하여, 잘 다스려진 정치로 보는 것과 달리 선생은 패도로 보았다. 그것은 유학의 이념에 따른 도덕적인 왕도가 아니라는 까닭에서였다.

오늘날 패도는 리더가 법과 규정과 권한으로만 밀어붙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다.

志無所定則招弄權之臣志主一偏則聚面諛
지 무 소 정 즉 초 농 권 지 신 지 주 일 편 즉 취 면 유
之士志之所向效如影響
지 사 지 지 소 향 효 여 영 향

◁간원진시사소▷

임금의 뜻이 정하여진 데가 없으면 권세를 농락하는 신하를 불러들입니다. 뜻이 한쪽만 편들면 눈앞에서 아첨하는 선비를 모읍니다. 뜻이 향하는 곳에 따른 효과는 그림자와 메아리와 같습니다.

If the will of the king is not determined, he summons ministers who play tricks on his authority, and if his will is on one side, he gathers flattery scholars in front of his eyes. The effect of where the will is directed is like shadows and echoes.

*所定: 정해진 것(곳)
*招: 불러들이다
*弄: 희롱하다
*權: 권세
*一偏: 한쪽으로 치우치다
*聚: 모으다, 모이다
*面諛: 눈앞에서 아첨하다
*所向: 향하는 곳
*效: 효과, 효험
*影響: 그림자와 메아리, 다른 사물에 효과나 작용이 빠르게 미치는 것을 비유함

해설

임금이 뜻을 정하지 못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정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현대의 국가나 기업 조직에서도 최고 지도자가 뜻을 정하지 못하여 우유부단하면, 온갖 협잡꾼들이 끼어들어 국정이나 회사 일을 농단(隴斷)한다.

또 그 뜻이 편향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아첨하는 무리가 끼어든다. 권력자가 특정 직종의 인사들만 중용(重用)하면, 그 조직 내의 아첨하는 무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

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리더가 어떤 뜻을 갖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물체의 그림자와 소리의 메아리처럼 반응한다.

以作新斯民爲志則流俗守常之說不能拘矣
이 작 신 사 민 위 지 즉 유 속 수 상 지 설 불 능 구 의

◁동호문답▷

임금이 이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뜻을 둔다면, 유행하는 속세의 상례(常例)를 지키자는 주장에 구속받지 않을 것입니다.

If the king set his will on renewing this people, he will not be bound by the insistence on keeping the widespread customs of the world.

*以~爲~: ~을 ~로 삼다　　*作: 만들다
*新民: 백성을 새롭게 하다　　*斯: 이
*流俗: 세속, 세속에 유행하는 풍조
*守: 지키다　　*常: 평상, 일상
*拘: 구애받다

해설

군자 또는 통치자의 큰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백성을 새롭게 한다'라는 신민(新民)은 『대학장구』의 「경1장」에 나오는 말이다. 그 전체 내용은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며 백성을 새롭게 하며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다"라는 것으로, 신민은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근대 전환기 조선과 중국 학자들 가령 신채호(申采浩)나 량치차오(梁啓超) 등은 이 신민을 다시 소환하여 인민을 계몽하는 뜻으로 삼았다. 그 계몽의 내용은 근대적 사상과 제도였다.

현대 민주 사회에서는 국민이 항상 스스로 새로워야 나라가 발전하고, 정치도 안정된다.

以刑于寡處爲志則婦侍宴安之樂不能移矣
이 형 우 과 처 위 지 즉 부 시 연 안 지 락 불 능 이 의

◁동호문답▷

아내에게 본보기가 되는 데 뜻을 둔다면, 내시(內侍)와 궁녀를 가까이하는 향락이 마음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If the king sets his will to be an example to the queen, the pleasure of being close to the eunuchs and court ladies will not take away his heart.

*以~爲~: ~을 ~으로 삼다

*刑于寡妻: 아내에게 모범을 보이다

*婦: 여자, 아내, 궁녀라는 뜻으로 쓰였음

*侍: 시중드는 사람, 내시라는 뜻으로 쓰였음

*宴安: 쾌락을 즐겨 노는 것(逸樂)

*樂: 즐거움

*移: 옮기다

*不能: ~할 수 없다

*矣: 문장 뒤에서 단정하는 어조사

해설

아내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임금의 뜻이다.

원문 '刑于寡妻'는 『시경』에 나오며, 『맹자』에서 다시 인용되어 널리 알려진 말이다. 원래의 글은 "아내에게 본보기가 되어 형제에게 이르고, 그로써 방(邦)과 가(家)를 다스린다"이다. 왕의 모범은 아내에게 보이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연결된다.

오늘날 리더십도 가정 같은 작은 영역에서부터 적용되며 그 역량 가운데 하나가 솔선수범이다.

以茅茨土階爲志則輿馬宮室之美不能動矣
이 모 자 토 계 위 지 즉 여 마 궁 실 지 미 불 능 동 의

◁동호문답▷

검소한 생활에 뜻을 둔다면 수레나 궁궐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If the king has his will to live a frugal life, the desire to beautify his chariot or palace will not move his heart.

*茅茨: 띠 풀로 이어 만든 지붕 *土階: 흙 계단
*輿馬: 임금이 타는 수레와 말 *宮室: 궁궐과 그 안에 있는 방
*美: 아름답다 *不能: ~할 수 없다
*動: (마음이) 흔들리다

해설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임금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원문 '茅茨土階'는 초가지붕과 흙 계단으로 검소한 생활을 비유한 말이다. 고대의 성인으로 알려진 요임금이 그렇게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리더들, 특히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도 통하는 말이다.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검소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관저나 관사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사치와 탐욕에 빠진다면, 구성원들은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以博施濟衆爲志則一民之不被其澤者皆我之憂
이 박 시 제 중 위 지 즉 일 민 지 불 피 기 택 자 개 아 지 우

◁동호문답▷

임금이 널리 은혜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구제하기로 뜻을 둔다면, 백성 한 사람이라도 그 혜택을 입지 못하는 일이 모두 그 자신의 걱정이 될 것입니다.

If the king has will to be generous and to give relief to all people, it will be his concern that even one of his people will not benefit from it.

*博施: 널리 베풀다
*被: 입다, 당하다
*澤: 은택, 혜택
*我: 나, 여기서는 임금
*濟衆: 무리를 구제하다
*其: 그(대명사)
*皆: 모두
*憂: 근심, 걱정

해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제해야 한다는 임금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원문 '博施濟衆'은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자공이 묻기를 '만약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무리를 능히 구제한다면, 어떻습니까? 인(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어찌 인에만 머물 수 있겠는가? 반드시 성인일 것이니, 요순도 오히려 그것을 부족하게 여겼다'라고 하였다"(「옹야」).

공자의 이 말에 따른다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제하는' 임금의 뜻은 결과적으로 성인이 되는 일이다.

현대 국가의 최고 리더에게도 구성원의 복지와 안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惟是人君方立躬行之志方發施仁之政而漸
유 시 인 군 방 립 궁 행 지 지 방 발 시 인 지 정 이 점
次設敎則養與敎可以竝行而相成矣
차 설 교 즉 양 여 교 가 이 병 행 이 상 성 의

◁성학집요▷

오직 이 임금이 이제 몸소 실천할 뜻을 세우고 인정(仁政)을 베풀고 점차 교화를 펼치면, 백성을 기르는 것과 가르치는 일이 서로 병행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Only if this king now set his will on putting it into practice himself, implements benevolent government, and gradually spreads the moral education, then raising the people and teaching them will go hand in hand.

*惟: 오직
*方: 이제 막, 장차
*發: 드러내다
*漸次: 점차
*養: 기르다
*與: ~와(과)
*是: 이
*躬行: 몸소 실천하다
*施: 베풀다
*設敎: 가르침을 베풀다
*竝行: 나란히 가다, 병행
*相成: 서로 이루다

해설

임금이 몸소 실천해야 할 뜻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 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과 함께 거론하는 일이 '인정을 베푸는 것'인데, 원문 '發施仁之政'은 『맹자』에 등장하는 '發政施仁'의 다른 방식의 표현이다. 곧 "정사를 발동하여 사랑을 베푼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맹자의 정치사상 가운데 하나인 인정(仁政)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본문에서는 백성을 기르고 교육하는 일을 병행한다고 말했는데, 이 또한 공자와 맹자의 사상에 등장한다.

현대적 의미는 국가의 우선 과제가 국민 경제와 교육의 진작이라는 뜻이다.

以修明禮樂爲志則一政之不合古道者皆我之病矣
이 수 명 예 악 위 지 즉 일 정 지 불 합 고 도 자 개 아 지 병 의

◁동호문답▷

임금이 예악을 바로잡고 밝히는 일에 뜻을 둔다면, 한 가지의 정책이라도 옛 법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임금 자신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If the king has will to correct and clarify the rituals and music, any policy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old law will be his suffering.

*修明: 닦아 밝히다, 개선 · 개혁의 의미

*禮樂: 예법과 음악. 통치 방법 가운데 하나

*政: 정사 또는 그것을 행하는 규칙

*合: 합치다, 부합하다 *古道: 옛 도리(방법)

*皆: 모두

*病: 병, 여기서는 고통의 뜻으로 쓰임

해설

예악을 중시해야 한다는 임금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고대의 통치 방법에는 예악형정(禮樂刑政), 곧 예법과 음악과 형벌과 정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가운데 세 가지를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본문은 국정을 쇄신하거나 개혁하는 데 있어서 옛 법이라는 고도(古道)가 기준이 되고 있다. 이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상화된 옛 성인이 만든 제도이다. 성인의 가르침대로 제도를 개혁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자는 의도일 것이다.

현대적 의미는 국가의 통치에 문화 정책이 중요하며, 그마저도 고급문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뜻이다.

無所建白者知其無憂國之志愛惜爵祿者知
무 소 건 백 자 지 기 무 우 국 지 지 애 석 작 록 자 지
其無死難之節
기 무 사 난 지 절

◁동호문답▷

의견을 말하는 일이 없는 자는 나라를 걱정하는 뜻이 없고, 벼슬과 녹봉에 집착하는 자는 몸을 바치는 절의(節義)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You should know that a minister who does not express an opinion has no intention of worrying about the country, and you should know that a minister who clings to a position and salary has no fidelity for giving himself.

*建白: 조정이나 왕에게 의견을 말함
*知: 알다
*憂國: 나라를 걱정하다
*愛惜: 아끼다
*爵祿: 벼슬과 녹봉
*死: 죽다
*難: 어렵다 또는 어려운 일
*節: 절개, 절의

해설

무사안일이나 부귀에만 뜻을 둔 신하를 경계하라는 말이다.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이 그 조직을 위한 의견이 없으면, 그 조직에 대한 애정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적용할 수 있다. 게다가 연봉이나 승진에만 애착하는 구성원도 그 조직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조직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현대의 리더들이 깊이 새겨들으면, 조직을 이끌어 성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06

뜻에 따라 다른 결과

Results that depend on the will

이 장은 뜻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음 또는 어떤 뜻을 세우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를 제시한 내용이다.

古語曰有志者事竟成
고 어 왈 유 지 자 사 경 성

◁만언봉사▷

옛말에 이르기를, "뜻이 있는 사람은 일을 끝내 성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There is an old saying, "He who has a will will eventually get things done."

*古語: 옛말
*有: ~을 가지고 있다
*事: 일
*成: 이루다
*曰: 말하다, 이르다
*者: 사람
*竟: 끝내, 필경

해설

뜻이 확고한 사람이 이룬 결과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본문 속에는 '확고하다'라는 말이 없으나 일이 반드시 성취되는 점을 고려하면, 논리상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뜻을 이루려면 그것이 독실해야 함을 누차 말한 바 있다. 옛말에는 이전 시대의 많은 사람의 경험이 녹아 있기에 그 말의 실효성을 믿을 수 있어서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굳은 결심 또는 리더의 확고한 비전이 일을 성취하는 큰 요소이다.

學莫先於立志未有志不立而能成功者
학 막 선 어 입 지 미 유 지 불 립 이 능 성 공 자

◁성학집요▷

배움에는 뜻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은 없으니, 뜻이 서지 않고 공을 이룰 수 있었던 이는 아직 없습니다.

Setting a will is the first thing to do in learning, and no one has yet been able to succeed without setting his will.

*學: 배움 *於: ~보다

*莫先: 가장 앞서는 ~은 없다

*未有: 아직 ~이 없다 *者: 사람

*而: 문장을 잇는 접속사, and와 같음

*能: ~할 수 있다 *成功: 성공하다, 공을 세우다

해설

뜻을 세워야 공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어떤 일을 이루려면 목표를 세워야 한다. 특히 배움을 시작할 때 뜻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바른 사람이 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유학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다. 사람이 좇아야 할 가치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제각기 따르는 가치에 따라 뜻을 세우는 일은 여전히 유효하다.

自古勤者有立懶者無成夫何故有志與無志
자 고 근 자 유 립 나 자 무 성 부 하 고 유 지 여 무 지
得失自不同也
득 실 자 부 동 야

◁답성호원▷

예로부터 부지런한 사람은 공을 세우고, 게으른 사람은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뜻이 있고 없음에 따라 득실이 자연히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Since olden times, diligent man made achievements, and lazy man did not succeed. For what reason? This is because the gains and losses are not naturally equal depending on whether there is a will or not.

*自古: 예로부터 *勤者: 부지런한 사람
*立: 세우다(여기서는 공을 세우거나 立身을 뜻함)
*懶者: 게으른 사람 *夫: 저, 그
*何故: 무슨 까닭 *與: ~와(과)
*得失: 득실, 잃음과 얻음 *自: 저절로
*同: 같다

해설

뜻을 세운 사람과 세우지 못한 사람의 결과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뜻을 세우면 자연히 부지런하게 되어 성취하고, 뜻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목표와 추진력이 없어 게으르게 되므로 성공하는 일이 없다. 이것을 배에 비유하면 뜻은 방향타만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엔진의 동력 역할도 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뜻의 유무에 따라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원문 立은 '서다', '세우다'라는 뜻인데, 뜻한 공적을 세우거나 입신(立身)을 의미한다.

進則爲聖爲賢退則爲愚爲不肖
진 즉 위 성 위 현 퇴 즉 위 우 위 불 초

◁성학집요▷

나아가면 성인도 되고 현인도 되지만, 뒤로 물러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못난 자가 됩니다.

If you move forward, you become a saint or a sage, but if you step back, you become a stupid or foolish person.

*進: 앞으로 나아가다

*則: 조건절과 주절을 잇는 접속사(~하면 ~하다)

*爲: 되다

*聖: 성인

*賢: 현인

*退: 뒤로 물러나다

*愚: 어리석은 사람

*不肖: 못난 사람, 원래는 어버이를 닮지 않은 사람

해설

세운 뜻을 두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말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뜻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으나, "성인도 되고 현인도 된다"라는 말을 미루어 보면, 성현이 되는 뜻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감'은 뜻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일이고, '물러남'은 뜻을 세웠으나 포기하는 일을 뜻한다. 우리 속담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감만 못하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물러나는 일을 두고 한 말이다.

志乎道遵乎道由是而使一世爲唐爲虞志於
지 호 도 준 호 도 유 시 이 사 일 세 위 당 위 우 지 어
慾趨於慾由是而使一世爲叔爲季
욕 추 어 욕 유 시 이 사 일 세 위 숙 위 계

◁성학집요▷

전하께서 도에 뜻을 두고 그것을 따르면, 그로 인해 한세상을 요순시대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에 뜻을 두고 그것을 따르면, 그로 인해 한세상을 말세로 만들 것입니다.

Your Majesty, if you have a will on the Way and follow it, and because of that, you will make a world into the age of Yao and Shun. If you set your mind on greed and follow it, you will end the world because of it.

*志乎道: 도에 뜻을 두다 *遵乎道: 도를 따르다.

*由: ~로 말미암다

*使~爲~: ~을 ~되게 하다(使는 사역동사)

*唐虞: 요임금과 순임금의 나라 이름

*慾: 욕심, 욕망 *趨: 달려가다, 좇다

*叔季: 말세, 몰락

해설

임금이 어떤 뜻을 가지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 결과를 문학적 수사법을 이용하여 극단적인 두 사례로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고대의 태평 시대로 알려진 요순시대이고, 하나는 몰락하는 왕조의 말세이다.

원래 두 문장의 끝에 '由我也', 곧 "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길어서 생략하였다. 최고 통치자인 임금에게 그것이 달렸다는 뜻이다.

현대 조직에서도 최고 리더의 비전과 추진력 및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조직의 성패가 거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聖主賢臣志同合道魚水相懽
성 주 현 신 지 동 합 도 어 수 상 환

◁성학집요▷

성스러운 임금과 어진 신하는 뜻이 같고 도가 맞아서 마치 물고기와 물이 서로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The sacred king and the benevolent ministers have the same will and the same way, so it is like fish and water rejoicing with each other.

*聖主: 성스런 임금
*賢臣: 어진 신하
*志同: 뜻이 같다
*道合: 도가 합하다
*魚: 물고기
*水: 물
*相懽: 서로 기뻐하다

해설

임금과 신하의 뜻과 도가 같았을 때의 효과와 경지를 표현한 말이다.

도란 본래 '길'이라는 뜻이지만, 정치에서는 그 방법과 목적에 해당하는데, 유학에서는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도덕 정치가 그것이다. 임금과 신하 양자의 뜻과 도가 맞으면, 마치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다는 뜻이다.

현대의 조직에서 성과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리더와 구성원의 목표가 일치해야 하고, 방법 또한 같아야 한다. 그렇게 만드는 일이 리더의 역할과 역량이다.

以正心爲首其目有三一曰立大志二曰勉學
이 정 심 위 수 기 목 유 삼 일 왈 립 대 지 이 왈 면 학
問三曰親正人
문 삼 왈 친 정 인

◁간원진시사소▷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첫머리로 삼았는데, 그 조목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큰 뜻을 세우는 것이요, 둘째는 학문에 힘쓰는 것이요, 셋째는 바른 사람을 친애하는 것입니다.

The first step was to rectify your mind, and there are three items. The first is to set a great will, the second is to put effort into learning, and the third is to be friendly with upright person.

*以~爲~: ~을 ~로 삼다
*首: 머리, 첫 번째
*曰: 말하다
*大志: 큰 뜻
*親: 가까이하다, 친애하다
*正心: 마을을 바르게 하다
*目: 항목
*立: 세우다
*勉: 힘쓰다
*正人: 바른 사람

해설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일도 입지의 효과이다.

간쟁(諫爭)하는 기관의 일원으로서 당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에 대해 임금께 올리는 글 속의 내용이다.

임금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큰 뜻을 세우는 일이 들어 있다. 원문 정심(正心)은 『대학』 8조목의 하나이다. 임금으로서 성인이 될 큰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학문에 힘써야 함은 당연하다. 게다가 바른 사람을 가까이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특히 입지는 성인이 되는 도덕적 의지이므로 자연히 마음이 바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主上旣立大志務求實效則廟堂老成之人朝
주 상 기 립 대 지 무 구 실 효 즉 묘 당 노 성 지 인 조
著夙夜之賢豈無起而應之者乎
저 숙 야 지 현 기 무 기 이 응 지 자 호

◁동호문답▷

임금이 큰 뜻을 세웠고 실효를 힘써 구했다면, 조정의 노련한 사람과 부지런한 현인이 어찌 일어나 응하지 않았겠습니까?

If the king had set a great will and worked hard to seek its effect, how could not an experienced courtier and an industrious wise man have come out and respond?

*主上: 임금 *旣: 이미
*務: 힘쓰다 *求: 찾다
*實效: 실효 *廟堂: 조정
*老成: 노련하다 *朝著: 조정
*夙夜: 이른 아침과 늦은 밤, 부지런한 모양
*豈: 어찌 *起: 일어나다
*應: 응하다 *者: 사람

해설

큰 뜻과 그걸 이루기 위해 실효를 추구한 결과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조직에서 큰일을 이루려면 혼자서는 못한다. 반드시 인재가 있어야 한다. 인재는 리더가 세운 큰 뜻과 그것을 실행할 만한 능력을 믿고서 따른다. 곧 리더를 신뢰할 만하면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따른다.

만약 리더에게 그런 목표와 역량이 없으면, 해당 조직의 인재들이 일을 잘할지도 의문이지만, 밖에서 들어올 인재는 더욱 없다.

전근대 왕조시대의 일이지만, 그 원리는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上無必治之志下懷持祿之心見善而不能擧
상 무 필 치 지 지 하 회 지 록 지 심 견 선 이 불 능 거
見惡而不能退
견 악 이 불 능 퇴

◁성학집요▷

위에서는 기필코 잘 다스려야겠다는 뜻이 없고 아래에서는 녹을 타 먹겠다는 마음만 품고 있습니다. 착한 이를 보고도 등용하지 못하고, 나쁜 이를 보고도 물리치지 못합니다.

The king has no will to rule the country well, and his ministers only have the will to maintain their salaries. When the king sees good person, he can not hire him, and even when he sees bad person, he can not drive him out.

*上: 윗사람으로서 임금
*治: 다스리다
*懷: 품다
*見: 보다
*擧: 등용하다, 천거하다
*退: 물리치다
*必: 반드시
*下: 아랫사람으로서 신하
*持祿: 녹봉을 유지하다
*善: 착한 사람
*惡: 나쁜 사람

해설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는 뜻이 없었을 때의 결과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문장구조는 나열식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 맥락과 의미에서 본다면, 임금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는 뜻이 없음'에 따라 일어나는 일을 열거한 내용이다.

당시 대신들이 권세와 이익만 좇으면서, "기강(紀綱)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로만 떠들었다는데, 선생은 『성학집요』에서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런 현실을 비판하였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리더의 비전 없음과 인사정책의 실패를 비판한 것이다.

夫以窮理盡性爲志則苟且小成之論不能入矣
부 이 궁 리 진 성 위 지 즉 구 차 소 성 지 론 불 능 입 의

◁동호문답▷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을 다하는 데에 뜻을 둔다면, 조금만 성취해 보려는 구차한 의논이 끼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If your will is the exhaustive study of Principal and complete development of the nature, then a feeble discussion to achieve a little won't get in the way.

*夫: 대저, 발어사
*以~爲~: ~을 ~로 삼다
*窮理: 이치를 궁구하다
*盡性: 본성을 다하다
*苟且: 구차하다
*少成: 조금 이루다
*論: 말, 의논
*入: 들어가다, 들어오다

해설

학문에 뜻을 두었을 때 생기는 효과이다.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을 다한다"라는 원문 '궁리진성'(窮理盡性)은 『주역』의 「설괘전」에 나오는 말이다.

"이치를 궁구한다"라는 말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밝혀내는 일을 말하고, "본성을 다한다"라는 말은 수양을 통해 타고난 본성을 잘 발휘한다는 뜻이다. 이 둘은 학문에 있어서 유학의 큰 줄기이다.

오늘날 궁리는 과학, 진성은 도덕의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도덕 없는 과학은 맹목적이고 과학 없는 도덕은 공허할 뿐이다. 둘은 같이 가야 한다. 그러므로 리더로서 풍부한 지식과 뛰어난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도덕적이어야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志在爲善不爲他物所移者乃能以正自律而
지 재 위 선 불 위 타 물 소 이 자 내 능 이 정 자 율 이
能以正刑家也
능 이 정 형 가 야

◁성학집요▷

선을 행하는 데에 뜻을 두고 다른 사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라야 올바르게 스스로 규제할 수 있고, 올바르게 집안에서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Only a person who has a will to do good and is not shaken by other things can regulate himself by being right and can set an example in his family by being right.

*在: ~에 있다 *爲善: 선을 행하다
*爲~所~: '~에 의하여 ~되다'의 수동태를 나타내는 숙어
*他物: 다른 사물 *移: 움직이다, 이동하다
*乃: 이에 *能: ~할 수 있다
*自律: 자율, 스스로 규제하다 *刑: 모범이 된다

해설

선의 실천에 뜻을 두었을 때 생기는 효과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선을 실천하는 데 뜻을 두었을지라도, 그 뜻을 지키려는 마음이 확고해야 한다. 비록 본성이 선하더라도, 그 의지가 저절로 확고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뜻이 확고하면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사람이 되어 남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다.

이 말은 선조에게 올리는 글이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가르침이다. 현대의 개인이나 리더에게 강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07

뜻을 못 이루는 까닭

Reasons for not achieving your will

이 장은 성공하지 못하는 까닭과 큰 뜻을 세웠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유를 소개한다.

問立志先賢多泛論先生作書立言每每首言
문 입 지 선 현 다 범 론 선 생 작 서 입 언 매 매 수 언
此何意曰非立志則萬事不成
차 하 의 왈 비 입 지 즉 만 사 불 성

◁어록 상▷

문: 선현(先賢)들은 대부분 입지를 데면데면 논하였는데, 선생께서는 글을 써 말할 때 언제나 첫머리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도에서 그랬습니까?

답: 뜻이 서지 않으면 만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Q: Most of the previous sages discussed the setting their will in a careless way, but you always said this at the beginning of your writing. What did you mean by that?

A: It is because everything will not be successful if the will is not set.

*問: 묻다
*泛論: 데면데면 논하다
*立言: (의견을) 말하다
*首: 머리, 먼저
*何意: 무슨 의도(목적)
*多: 대부분, 많다
*作書: 글을 작성하다
*每每: 늘, 항상
*此: 이것

해설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선생의 글을 보면 입지를 말한 곳이 꽤 많다. 묻는 자도 그것을 알아채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사실 뜻을 세우면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다. 그러나 뜻을 세우지 않으면 유의미한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나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입지의 중요성을 새삼 알 수 있다.

개인이나 조직에 어떤 비전과 목표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 이는 개인에게는 주체성, 조직에는 리더의 자질과 역량의 문제이다.

學者終身讀書不能有成只是志不立耳
학 자 종 신 독 서 불 능 유 성 지 시 지 불 립 이

◁성학집요▷

배우는 사람이 평생토록 글을 읽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한 까닭은 단지 뜻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the learner could not have been successful by reading all his life is simply because his will has not been set yet.

*學者: 배우는 사람
*終身: 평생, 죽을 때까지
*讀書: 독서
*不能: ~할 수 없다
*有成: 이룸(성공)이 있다
*只: 단지
*是: ~이다 또는 이
*耳: 문장 뒤에서 글의 의미를 단정하는 어조사

해설

평생 글공부를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까닭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공부의 방법 가운데는 책을 읽는 일이 가장 흔하다. 하지만 평생 글을 읽었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로 없을까? 나름의 성공은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선생이 말하는 성공이란 일반적 일이 아니라, 성인이 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잘 알려진 인사들 가운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그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의 꿈이 원대하지 않고 세속적 욕망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이다.

凡人自謂立志而不卽用功遲回等待者名爲
범 인 자 위 입 지 이 부 즉 용 공 지 회 등 대 자 명 위
立志而實無向學之誠故也
입 지 이 실 무 향 학 지 성 고 야

◁격몽요결▷

무릇 사람들이 뜻을 세웠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곧바로 힘쓰지 않고 미적거리며 미루는 까닭은 말로만 뜻을 세웠지, 실제로는 배움을 향한 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Usually everyone says for himself that he set his will, but reason of procrastinating without making an effort right away is because he set his will only with words, and there is no sincerity towards learning in reality.

*凡: 무릇
*卽: 곧장
*遲: 더디다
*等待: 기다리다
*名: 명분, 여기서는 말로만
*向學: 학문을 향한
*故: 까닭, 때문
*自謂: 스스로 말하다
*用功: 노력하다, 힘쓰다
*回: 피하다
*者: ~하는 것
*實無: 실제로 없다
*誠: 정성, 성실

해설

뜻을 세웠으나 미적거리며 힘쓰지 않는 까닭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것은 우선 진지하게 뜻을 세우지 않았고, 다음으로 배움을 향한 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인이 되는 일은 자신의 삶이 온통 걸린 문제이므로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진실하게 배운다면, 어찌 미적거릴 수 있으며 또한 힘쓰지 않겠는가?

뜻을 세웠다면 성인이 되기 위한 실제적 노력은 성실하게 배우는 일이다. 해서 리더도 배워야 한다. 배움을 부끄럽게 여기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聖人何故獨爲聖人我則何故獨爲衆人耶良
성 인 하 고 독 위 성 인 아 즉 하 고 독 위 중 인 야 양
由志不立知不明行不篤耳
유 지 불 립 지 불 명 행 부 독 이

◁격몽요결▷

성인은 무슨 까닭으로 유독 성인이 되었고, 나는 무슨 까닭으로 유독 보통 사람이 되었는가? 이는 참으로 뜻이 서지 못하고 앎이 밝지 못하고 행동이 독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Why did a saint become a saint alone, and why did I become an ordinary person alone? This is truly because my will was not set, my wisdom was not brightened, and my practice was not earnest.

*何故: 무슨 까닭
*爲: 되다
*耶: 의문문 뒤에 붙는 어조사
*良: 진실로, 참으로
*知: 앎
*行: 행위, 행동
*耳: 문장 뒤에서 글의 의미를 단정하는 어조사
*獨: 유독, 홀로
*衆人: 보통의 평범한 사람
*由: ~때문이다
*不明: 밝지 않다
*不篤: 독실하지 않다

해설

성인이 되지 못한 까닭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선생은 『격몽요결』에 「입지」장을 따로 두어 배우는 사람은 성인이 되라고 주문하였다. 사람이 성인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일차적으로 성인이 되려고 뜻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앎이 밝지 못하고 행동이 독실하지 못한 일도 그 이유가 된다.

이로 보면 밝은 앎과 독실한 행동은 앎과 실천의 문제로서, 그 뜻을 이루려는 방법이자 과정이니, 성인이 되는 일은 입지(立志)와 명지(明知)와 독행(篤行)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志之不立其病有三一曰不信二曰不智三曰不勇
지 지 불 립 기 병 유 삼 일 왈 불 신 이 왈 부 지 삼 왈 불 용

◁성학집요▷

뜻을 세우지 않는 데에는 세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 믿지 않는 것이요, 둘째 지혜롭지 못한 것이요, 셋째가 용맹하지 못함입니다.

There are three faults in not setting a will. The first is unbelief, the second is unwise, and the third is not valiant.

*志之不立: 원래는 不立志(부정사+동사+목적어)인데 志를 강조하기 위해 도치하면서 之가 들어감

*其: 그

*病: 잘못

*曰: 말하다, 이르다

*不信: 믿지 않다

*不智: 지혜롭지 않다

*不勇: 용감하지 않다

해설

뜻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까닭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성학집요』 속의 글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뜻은 성군이 되려는 일이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성현의 가르침을 안 믿는 일이다. 일반 상식에서 보면 성인이 되는 일을 믿지 못할 것이지만, 그 가능성은 앞에서 이미 밝혔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그 공부가 미진해서이다. 그로 인해 용감하게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오늘날 무능한 리더가 비전을 갖지 못하는 일도 리더십 이론과 그 효과를 믿지 못하고, 그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것을 발휘할 용기도 없기 때문이다.

今世之人不强於爲善者只是心志爲他物所
금 세 지 인 불 강 어 위 선 자 지 시 심 지 위 타 물 소
移耳政敎風俗有以使之也
이 이 정 교 풍 속 유 이 사 지 야

◁만언봉사▷

지금 세상 사람들이 힘써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단지 마음과 뜻이 외물(外物)에 따라 옮겨 다닐 뿐이니, 이것은 정교와 풍습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The reason people in the world today do not strive to do good is simply that their minds and wills are disturbed by external things, so this is entirely due to politics, enlightenment, and customs.

*今世之人: 지금 세상의 사람

*强於: ~을 강하게 하다

*爲善: 선을 행하다

*者: ~하는 것

*只: 단지

*是: ~이다

*使: 시키다(사역동사)

*心志: 마음과 뜻, 또는 마음에 품은 뜻

*爲~所~: ~에 의하여 ~되다(당하다), 수동태

*他物: 다른 물건. 여기서는 외물의 뜻으로 쓰임

*移: 이동하다, 마음이 동요하다

*政敎: 정치와 교육 또는 정치와 교화

해설

일반인이 선을 실천하지 못하는 까닭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결국 마음과 뜻이 외물에 이끌려서 그렇게 되었고, 마음과 뜻이 그렇게 되는 까닭도 정치와 교화와 풍속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정치와 문화가 그렇게 만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본주의 문화는 온통 사람의 마음을 외부로 향하게 만든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각자의 중심을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時君世主不信聖賢之說深契俚俗之談其故
시 군 세 주 불 신 성 현 지 설 심 계 리 속 지 담 기 고
何哉自無嚮道之志又乏好賢之誠
하 재 자 무 향 도 지 지 우 핍 호 현 지 성

◁성학집요▷

지금 세상의 군주로서 성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속의 말만 깊이 믿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도를 향하려는 뜻이 없고, 또 어진 이를 좋아하는 정성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As the current ruler of this world, what is the reason for not believing the words of the wise and believing only the worldly words? This is because the ruler has no intention of going to the Way on his own, and he lacks the sincerity to like a benevolent person.

*時君: 현재의 임금 *世主: 세상의 주인
*不信: 믿지 않다 *聖賢: 성현
*深契: 깊이 들어맞다, 맞다고 여기다
*俚俗: 세속 *談: 말, 담론
*故: 까닭, 연구 *何哉: 무엇인가?
*嚮: 향하다 *乏: 모자라다, 결핍하다
*誠: 정성

해설

당시 임금이 성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속의 말만 믿는 까닭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성학집요』에서 성현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신뢰하는 선조 임금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말이다. 그 까닭은 성인의 도를 향하려는 뜻도 없고, 어진 이를 좋아해 등용하는 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글 외에 선생의 상소문에서도 이런 어조의 글이 자주 등장한다. 현실을 비판하면서 나라의 폐단을 개혁하고 어진 인재를 등용시키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오늘날 정치적 리더도 국가의 비전과 원칙을 뒤로 하고 대중의 인기에 지나치게 영합해서는 안 된다.

부록

입지의 철학적 근거와 배경

입지(立志)

'뜻을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입지는 이이(李珥: 이하 선생으로 약칭)의 여러 저작에서 자주 발견되는 용어이다.

우선 '뜻'[志]의 의미를 선생은 '마음이 가는 곳'[心之所之]으로 정의한다. 주희(朱熹)도 뜻을 '마음이 지향하는 곳'[心之所向]으로 보는데, 이는 같은 뜻이다. 뜻은 대상을 지향하는 의지(will)로서, 단순히 생각으로서 마음의 발동[心地所發]과 그 결과인 의(意, thought or ideas)와는 다르다.

그리고 '세우다'[立]는 '확립(確立)하다', '정립(正立)하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입지는 뜻을 확고하게 또는 똑바로 세움을 뜻한다.

선생은 이 '뜻'의 대상을 사람마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욕망(desire, ambition)과 의도(intent)와 목적(purpose, aim), 삶의 표준(standard) 등이 그것이다. 선생이 말한 '뜻'의 대상은 대체로 목표 또는 표준으로서 성인을 가리킨다.

이 입지는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인간의 실제적 삶에 있어서는 도덕적 행위를 이끄는 강한 의지의 다른 표현이다. 이 의지야말로 도덕적 행위로 이끄는 원동력이다.

본서에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철학적 근거, 방법, 종류 등을 영역별로 자세히 편집 · 소개하였다.

성리학(性理學)의 탄생과 도입

성리학은 북송의 대표적 유학자들인 주돈이(周敦頤)· 장재(張載)· 소옹(邵雍)· 정호(程顥)· 정이(程頤) 등을 거쳐 남송의 주희(朱熹)가 완성한 새로운 유학으로, 공자 이후의 유가 사상을 불교나 도교 철학의 도전에 따라 새로운 철학으로 해석한 유학이다. 그 이전의 유학이 『오경』(五經) 중심이었다면 성리학은 『오경』보다 『사서』(四書)를 더 중시한다.

송학(宋學)· 이학(理學)· 정주학(程朱學)· 주자학(朱子

學)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신유학(新儒學)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말 안향(安珦, 1243~1306)에 의하여 도입되어, 조선을 건국하는 이념이 됨과 동시에 세종조 찬란한 문화를 건설하는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선생 입지 사상의 배경과 아울러 그 전제와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리학을 알아야 한다. 아래 항목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철학적 범주에 따라 성리학을 설명하였다.

리(理)와 기(氣)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과 개념은 다양하다. 성리학은 크게 리와 기로서 설명한다.

우선 기는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 · 물리적 근거이다. 자연계의 물질 현상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현상도 기의 일이다.

리는 세계 또는 사물이 그러하게끔 만드는 원인자[所以然]이자 동시에 사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까닭[所以然之故]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당위적 근거[所當然]이다. 자연물이 아닌 인간의 일을 중심으로 말하면, 리는 당위적

윤리의 근거로 강조된다.

이 리를 달리 천리(天理)라고도 부르는데, 사물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그 다양한 것 가운데 보편적인 리도 있으니 그것이 바로 태극(太極)이며 이것이야말로 세계의 시원에 해당하는 궁극적 존재이다. 이 논리가 이일분수(理一分殊)로서 '이치는 하나지만 각각의 분수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도 없지만[不相離], 그렇다고 섞일 수도 없다[不相雜]. 이는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물건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 형상(form)과 질료(matter)의 관계와 흡사하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반드시 리와 기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다만 형체를 이룬 사물은 그 기가 뭉쳐진 질(質)을 이루고, 사람의 몸처럼 그 질 속에 또 기가 들어 있으니 함께 기질(氣質)이라 부른다.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 사물은 리와 기질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의 본성(本性)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 철학적 근거가 풍부한 철학 범주가 인간의 본성 개념이다. 그 가능성을 인간성 안에서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 특수한 사람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선생의 논리를 일반화할 수 없고 보편적인 인간성 설정도 의미가 없다.

그 보편적 인간성은 두 가지 전제를 갖는다.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이고, 다른 하나는 천리(天理)로서 리가 모든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성즉리(性卽理)의 논리이다. 공맹(孔孟)의 유학을 계승한 성리학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이 착하며 동시에 그 본성으로서 갖춰진 이치를 온전히 발휘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선생은 "성인과 보통 사람의 본성은 같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인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리와 기를 소환해야 한다. 누구나 똑같은 천리를 본성으로서 부여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발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성인과 보통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그 원인은 바로 기질(氣質)에 있다고 한다. 곧 기질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지혜롭고 인식 능력이 탁월해 내게 부여된 본성을 잘 깨달아 발휘하지만, 기질이 혼탁하고 어두운 사람은 어리석고 몽매하여 그 기질이 본성을 덮어 가리므로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한다.

보통 사람이 그 기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부와 수양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보하면 자연히 지혜가 밝아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원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본성을 회복하여 본성대로 사는 사람인 그가 바로 성인이다. 그래서 선생은 또 "성인은 배워서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공부를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바로 이런 철학적 근거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공부의 진척 상황에 따라 성인으로부터 무지몽매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간 군상의 편차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사람이 저절로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되려는 강한 자발적 의지가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입지이다.

거경궁리(居敬窮理)

이제 보통 사람이 성인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곧 배움과 수양이다. 그래서 선생은 "사람의 타고난 기품은 제각기 다르지만, 아는 일과 실천에 힘쓰면, 공을 이루는 것은 다 같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는 일이란 곧 앎의 문제이고, 실천이란 수양을 포함한다.

성리학에서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거경궁리인데, 궁리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므로 배움에 해당하고, 거경은 '경(敬)에 거주한다'라는 수양의 용어로서 여기에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

배움은 『논어』의 첫머리부터 공자가 강조한 이래 유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대학』 8조목 가운데 맨 먼저 등장하는 말이 격물치지(格物致知)인데,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이루는 일이 그것이다. 주희는 이 격물치지를 궁리로 여겼다. 궁리는 원래 『주역』, 「설괘전」에서 궁리진성(窮理盡性)이란 말에 등장하는데 '이치를 궁구하여 본성을 다한다'라는 뜻이니, 형식 논리에서 보더라도 성리학이 이것도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거경(居敬)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수양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수양(修養)이란 수기(修己) 또는 수신(修身)으로서 자기 몸을 닦는 일이다. 몸을 닦는 일이지만,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어, 몸을 닦으면 자연히 마음도 닦이게 된다.

선생이 세운 뜻을 유지하기 위해 경을 강조한 것도 수양의 뜻이다. 경이란 마음을 잡도리하는 일로서, 외물로 달려가 흐트러진 마음을 붙잡아 와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리는 역할이다. 그리고 마음을 잡도리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가 성(誠) 곧 성실인데, 이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을 말한다.

그래서 거경궁리란 깨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천리(天理)로서 갖춰진 내 마음의 이치를 궁구한다는 뜻이다. 이 또한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함양(涵養)과 성찰(省察)

선생의 『성학집요』에 "궁리하여 선을 밝히고, 돈독한 뜻으로 기를 통솔하며, 함양하여 성실을 보존하고, 성찰하여 거짓을 버려서, 어둡고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라는 말이 등장한다. 궁리와 더불어 함양과 성찰은 공부와 수양에서 성리학의 주요 개념이다.

함양이란 다른 말로 존양(存養)으로도 부르는데, 쉽게 말해 본성으로서 주어진 천리(天理)를 마음에 잘 보존하는 일이다. 이것은 『중용』에서 말하는 본성이 희로애락의 정(情)으로 발동하기 이전의 상태인 미발(未發)의 공부이

다. 미발이란 마음이 깨어 있으나 아직 외물과의 접촉이 없어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것을 중(中)이라 부른다.

성찰이란 마음이 사물을 만나 본성이 감정으로 드러난 이발(已發)의 공부로서, 그 감정이 지나쳤거나 모자람이 없었는지 되돌아 살피는 일이다.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이 절도에 들어맞았을 때 화(和)라고 부른다.

모두 성인이 되기 위한 수양 공부이다.

존심(存心)

선생은 「시정사학도」(示精舍學徒)에서 "도에 들어가는 기본은 입지가 원대하고 존심이 독실한 데 달려 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존심이란 '본심을 보존한다'라는 뜻으로 『맹자』에 등장한다.

맹자가 말한 본심이란 성선설에 근거한 착한 마음인 인간의 본래 마음이다. 달리 말하면 『서경』에서 말하는 도심(道心)과 같다. 육체적 욕망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선을 지향하는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맹자는 인(仁)과 예(禮)로서 마음을 보존한다고 하였다.

『맹자』에는 이런 본심을 잃은 상태를 방심(放心) 곧

놓아버린 마음으로 표현한다. 마치 기르던 소나 닭 같은 가축을 놓아버린 것으로 비유한다. 가축을 집으로 몰아오듯 놓아버린 마음을 되찾는 일을 구방심(求放心)이라 일컬었다.

선생은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는 일을 독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기치인(修己治人)

"자기 몸을 닦아 남을 다스린다"라는 수기치인은 『논어』에 등장하는 말이다. 『논어』에서는 또 '자기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修己而安百姓)라는 말도 있는데, 같은 말이다.

이후 이 말은 유학의 본질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인용된다. 『대학』 8조목의 격물(格物)부터 수신(修身)까지는 수기의 일이고, 제가(齊家)부터 평천하(平天下)까지는 치인의 일로 본다.

수기가 개인의 앎과 실천의 문제라면, 치인은 사회·국가적 실천의 문제이다. 『대학』 제가(齊家)의 가(家)도 대부(大夫)가 다스리는 작은 단위의 나라이다.

이 논리를 따르면 통치자는 수기를 통해 성인이 되어야

한다. 또 치인의 관점에서 보면 임금은 왕이다. 유학에서 이상적으로 바라는 군주는 바로 '안으로는 성인이면서 겉으로는 왕'이므로, 학술 용어로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이다. 선비들이 임금을 대할 때마다 '성군(聖君)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그런 배경을 갖는다. 하지만 내성외왕은 유가 문헌이 아닌 『장자』의 「천하」편에 최초로 보인다.

왕도(王道)와 패도(霸道)

선생이 선조 임금에게 통치자인 군주로서 어디에 뜻을 두어야 할지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 두 용어는 『맹자』에 등장한다.

왕도는 군주가 타고난 본래의 착한 성품을 발휘하여 잘 다스리는 도덕적이고 어진 정치 방법으로서, 맹자는 이것을 달리 인정(人政)이라 일컬었고, 그런 정치 형태를 후대에 왕도정치(王道政治)라 불렀다.

반면 인(仁)을 가탁(假託)하여 힘으로 다스리는 것을 패도라 하였고, 그렇게 하여 대국을 이룬 사람을 패자(霸者)라 불렀는데, 그런 정치 형태를 후대에 패도정치(霸道政治)라 불렀다. 패도정치는 대개 부국강병을 지향한다.

선생은 한나라와 당나라의 전성 시기도 왕도가 아닌

패도로 보고 있다. 왕도정치라는 성리학의 이념에서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생은 또 왕도정치와 유사한 표현으로 삼대(三代)와 요순(堯舜)의 정치, 그리고 치치(致治)를 언급하였는데, 삼대란 유학자들이 이상으로 삼는 하(夏)·은(殷)·주(周) 삼대의 정치를 말하고, 요순의 정치는 고대의 태평한 시대를 이루었다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정치를 말한다. 그리고 치치는 이상적으로 잘 다스려지는 정치 상황을 묘사한 말인데, 일찍이 『사기』나 『자치통감』 같은 문헌에 보인다. 중종 때 조광조(趙光祖)가 이 치치를 표방하여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좌절하였다.

이는 유학이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백성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정치를 통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유학 사상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지만, 유독 정치적 담론이 많은 까닭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도덕 실천의 동력

선생이 입지를 강조한 의도를 생각해보면, 성리학 내에서 도덕을 실천할 동력을 어디서 찾느냐의 문제와 연관된다.

육체적 욕망은 생물학적 본능을 따르므로 실천의 동기나 동력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욕망 자체가 강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덕적 행위는 그렇지 않다. 비록 성리학이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인간 본성에 정초시켰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 본성대로 살지 않는다. 그 또한 성리학에서 기질의 개념으로 잘 설명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인간답게 또는 본성대로 살려는 인간의 강한 의지가 개입해야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반하는 공부와 수양의 동력도 그 의지로부터 나온다. "뜻이란 기의 장수이다"라는 말이 그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보통 사람에겐 그 의지도 욕망을 향한 의지만큼 인간을 크게 지배할지 의문이다. 훗날 서양에서 다수의 이익(욕망)을 추구하는 공리주의(功利主義)가 출현한 일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편역자 후기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의 입지(立志) 사상은 특별하다. 조선 유학사에서 이전 학자들이 달리 강조해 저술한 일이 없었는데, 유독 선생이 『격몽요결』에서 따로 하나의 장으로 다룰 정도로 의미가 있고, 다른 글에서도 자주 언급하였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유학을 망국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호되게 비판한 신문화 운동가들조차도 선생의 이 입지만은 계승 ·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현대인들의 사고 습관에 맞게 범주별로 나열하여 논한 것이 아니기에, 편역자가 관련된 글을 모아 거기에 맞춰 편집하고 우리말로 옮겼다.

그리고 그 확장성을 위하여 본문을 영문으로 옮기고, 일반인과 조직의 리더를 위한 간략한 해설을 붙이며, 한자 뜻풀이도 수록하였다.

이 책에 등장하는 중요한 용어와 인명의 영문 표기는 주로 펑유란(Fung Yu-Lan)의 *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1953, Princeton University)와 『근사록』(近思錄)을 영역한 *Reflections on Things at Hand* (1967, Columbia University)를 따랐다. 이 책들도 본서처럼 영문으로 정확하게 옮길 수 없는 용어에 대해서는 학파와 문맥에 따라 의역하여 같은 한자가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자를 가까이 두고 자주 읽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체득하여 각자의 인생에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끝으로 본서의 집필을 기획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조언을 마다하지 않으신 최영진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 9.

이 종 란

편역자 소개

이종란(李鍾蘭)

철학박사. (전) 교사, 성균관대 강사, (현) 독립학자로 연구와 저술 활동에 전념.
주요 저서로는『율곡의 마음공부』,『미래를 향한 율곡의 가정교육』,『서양 문명의 도전과 기의 철학』,『민의 철학과 민족종교』(공저),『기란 무엇인가』,『의산문답』,『최한기의 운화와 윤리』,『전래동화 · 민담의 철학적 이해』,『전래동화 속의 철학 1~5』 등과『이이가 들려주는 이통기국 이야기』 외 다수의 철학 동화가 있고, 번역서로는『운화측험』,『왕양명 실기』,『공제격치』,『주희의 철학』(공역),『왕부지 대학 · 중용을 논하다』(공역),『동호문답』,『율곡의 상소문』,『만언봉사』 등이 있으며, 그 외 여러 논문이 있다.